



#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포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33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8월 15일

[1]



사범대학 국어·화학교육과 학생들이 지난 7월초 충남 당진에서 닭장 청소, 논·밭 김매기, 담배잎 말리기, 탁아소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서울대 정신 심는 봉사의 손길 곳곳에

### 관상추추

與圈 大選후보들의 경선 과  
열이 아직 식지 않은 탓인가.  
아니면 벌써 열을 뿜는 대선  
뜨거운 입김때문인가?

올해의 8월은 유별나게 더위  
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듯 싶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바캉스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바닷가의 비릿한 갯바람이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綠陰의 서늘한 그늘이 우리를 손짓한다.

비가 개인 날 / 맑은 하늘이 못속에 내려와서 / 여  
름 아침을 이루었으니 / 녹음이 종이가 되어 / 금붕  
어가 시를 쓴다.(金玟燮)

과일도 풍성하고 잎도 무성하고 태양도 한껏 이글  
거리고 있다. 타는 듯 피어난 眞紅색 칸나꽃, 시냇가  
에 우뚝서서 다소곳이 핀 木百日紅꽃도 흐릿한 추억  
을 부추기는 熱情의 계절이다. 그러나 더위도 이달을

### 「바캉스」의 哀愁

다 못넘기고 우리 곁을 떠난다. 7일이 立秋. 16일의  
末伏을 지나면 23일은 處暑다. 옛부터 처서가 지나면  
물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지겨운 무더위에 이별의 애수를 느낀다고 했단가! 가

는 더위가 아쉬워서가 아니다. 15일은 광복절이 아니  
던가! 해방된지 반세기를 넘어 52번째 되면서도 여태  
제나라를 통일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민족이 여기  
있다.

8월은 몸도 타고 마음도 타는 달이라고 말하는 까  
닭이 여기 있다. 休息의 진미는 일하는 사람만이 맛  
볼 수 있는 보너스와도 같다. 8월의 바캉스는 「思索  
의 果實」을 보너스로 삼았으면 한다. 모처럼의 휴가  
철에 무거운 짐을 지워 잡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장래를 그려보고 자기 나름의 소임과 생각을  
다잡해 보면 한결 시원하고 보람있는 休息이 될 줄  
안다. (根)



## 달라스 지부

## 새 회장에 趙光泳동문 선출

달라스지부동창회(회장 金鍾元)는 지난 6월 21일 林禎淑부

회장 자택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尹吉雄(테너·89년 音大卒), 李庭俞(바이올린·87년 音大卒), 金俊希(피아노·87년 音大卒)동문이 작은 음악회를 열고 격조 높은 연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진 임원개선에서 신임 회장에 趙光泳(66년 藥大卒)동문, 감사에 任聖彬(60년 師大卒)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林禎淑(59년 音大卒)동문, 총무에 朴勳(69년 工大卒)동문, 회계에 李潤根(63년 師大卒)동문, 서기에 李海成(83년 自然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裴 회장(사진 左)이 金豪哲동문에게 개인 1등 시상을 했다.

## 인도네시아 지부

## 단대별 골프시합...工大 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相環)는 지난 7월 17일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JAGORAWI C.C.에서 골프시합을 개최했다.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개인

전과 공대, 농대, 상대 및 법대(문리대 포함)등 4개 팀의 단체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개인전 1등은 金豪哲(74년 工大卒)동문이 차지했다.

또한 상금 1백만 루피아가 걸린 단체전 1등은 공대팀, 상금 50만 루피아가 걸린 2등은 상대팀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裴회장은 『오는 10월 9일에 열린 서울대인의 밤 행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차기 골프시합은 11월 28일에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술작품

## 黃賢秀 作



골고다 언덕, 50X 40X 15cm, 청동, 1997.

## 〈작가 약력〉

- △78년 미대 졸업
- △82년 서울조각회전
- △83년 해화동인전
- △84년 한국미술의 신세대전
- △85년 한국미술협회전
- △86년 한일현대미술교류전
- △88년 공간의 언어전
- △90년 조각 90년대전
- △92년 갑인동인행전
- △93년 동세대전
- △94년 갤러리 마담포라 개관1주년 기념전

## 趙洪來동문

## 대통령 정무수석에



金泳三大통령(51년 文理大卒)은 지난 7월 11일자로 공식 중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장관급)에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 사장(사진)을 임명했다.

신임 趙정무수석비서관은 8, 10, 12대의 3선의원으로 「민주화시대의 농업정책」이란 저서를 펴내는 등 농정통으로 정평

이 나 있으며 정연한 논리와 정열적인 언변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 감사원 위원·사무총장

## 盧宇燮·李明海동문 임용



盧宇燮감사위원



李明海사무총장

정부는 지난 7월 18일자로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盧宇燮(64년 法大卒)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차관급)에 李明海(63년 文理大卒)제1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신임 盧감사위원은 행정고시 5회 출신으로 30여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며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발이 넓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임 李사무총장은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지난 5월 한보특감을 총지휘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굵직한 감사를 도맡은 감사원의 아전사령

관이다.

## 국립현대미술관

## 관장에 崔滿麟동문 취임



우리들의 미술관이지요. 원로와 중견, 신진 미술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신임 崔관장은 무엇보다 한국의 현대미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崔관장은 67년 모교에 부임, 30여년을 재직하면서 미술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7차례의 개인전을 펼친 중진 조각가이다. (燮)

지난 7월 18일자로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모교 崔滿麟(58년 美大卒)교수(사진)가 취임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특정 장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바로

## 주요목차

|                                     |     |
|-------------------------------------|-----|
| 서울대가족 .....                         | 6면  |
| 徐廷琪의대교수                             |     |
| 모임탐방 .....                          | 8면  |
|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金鎮炫대표                   |     |
| 기획탐방 .....                          | 9면  |
| 통신소프트웨어 개발 주역 (주)새롬기술 동문을 찾아서 ..... | 13면 |
| 대한적십자사 鄭元植총재                        |     |
| 화제의 동문 .....                        | 22면 |
| 거미연구가 金胄弼교수                         |     |

금년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라전반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경제침체와 그에 따른 대기업 부도사태, 북한의 식량난과 대남전쟁위협, 정치·경제적 이해상충 속에 긴박하게 벌어지는 동북아 정세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말기의 이른바 레임덕현상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나 장기적 발전방안을 세우는 데는 무력한 것이 현실이다.

## 국가정책 선거열풍에 묻혀

최소한의 對症요법을 쓰는 데만도 허덕이는 실정이나 참으로 안타깝다.

이미 여야주요정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정되어 대선 전초전이 사실상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국가적 정책과제들은 선거열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대권쟁탈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시하지 않는 우리의 정치풍토가 갑자기 개선되기는 어려운만큼 지식인과 의식있는 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주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후보들도 보다 더 국가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요정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의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더하도록 하는 격려가 될 것이다.



누리나무광장



李 東 和  
서울신문 주필

## 대통령선거에 보다 관심을

난제가 가득한 속에서 21세기를 열어가야할 새 대통령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기 때문에 그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지식인으로 자부하는 서울대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선과정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가 대선에 보다 관심을 가질 조그만 요소는 있다. 여야 3당 대통령후보중 두분이 서울대출신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국가지도자중에는 그 나라 명문대출신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군사독재체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른바 문민정부에서부터 이같은 선진화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당인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는 이른바 「7룡」 「6룡」이 모두 서울대동문으로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출됐다. 이런 현상을 놓고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정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아전인수일까?

## 지식인의 뒷받침 필요하다

다만 명문대출신이라고 꼭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는 법은 없다.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제때에 제대로 제시하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초기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충분히 준비된 가운데 복잡다기한 국정을 명쾌하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갖기위해서는 지식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동문들의 관심과 역할이 커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보 논설위원)

### 동문칼럼

## 교양은 단순한 지적 개념 아니다

韓仁洙(51년 師大卒)인천교대 명예교수

현대사회와 교양, 그것은 바람직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고, 현대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교양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 말이 쓰이고 있는 경우는 매우 다기적(多岐的)이다.

즉,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매우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으나, 「어떠한 것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나 일방적으로 지나치다든가, 전체적인 것이나 완전한 상태와 비교·대조해 보아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소극적으로 교양이 없다」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르쳐지고, 육성·성장되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 결여되고 있을 때에 흔히 교양이 없다고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대인의 손색없는 자질

교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여러가지의 경우와 보다 많은 일에 관하여 해야 할 태도나 다루어야 할 요령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

이에, 교양은 단순한 지적인 개념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교양 그 자체의 개념은 인간 그 자체의 실천상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지식에 의하여 보다 잘 실천할 수 있는 인간들을 칼로카가토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그리스인의 교양의 이상은 「선과 미의 융합·통일」이었으니, 이는 곧 칼로카가토스(Kalokagatos)라는 개념으로 포착된다.

이와 같이 교양은 단순히 지적인 것에만 한정시켜 생각할 수는 없고, 더 나아가 보다 깊

고, 한층 실천적·인격적인 것에서 그 참다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교양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을 그 본성에 따라 개발·완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꾀하고자 하는 그 자체, 즉 자기도야의 개념과 밀접·조합되는 성질의 것이다.

### 인간성 개발을 꾀해야

또 교양은 그 수확한 지식이 반드시 그 사람의 전문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습득된 기술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의 기초 위에서 성립되고 있는 교양에 있어서는 더 한층 학술적 진보에 적응하는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지식이 다만 고립적 지식으로서 유리되어 존재하여서는 창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전망이 가능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조화있는 형태로 인간생활 속에서 결합되어 통일적인 교양으로 넓혀 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徐廷琪동문

## 부친·형제·사촌 등 서울대인 헤아릴 수 없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다니”...내시경 이용한 의술 최고

『우리 집안내에 서울대동문이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서울대가족』에 소개하고 싶다고 처음 통화했을 때 무슨 소개거리가 있을까 걱정하던 徐廷琪(73년 醫大卒·모교 교수)동문. 생각외로 친척 중 동문이 많아 자기대에서 끊었다며 기자에게 20여 명의 동문 명단을 건네 주었다.

특히 徐동문 가족사는 곧 한국 의학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의학사에서 공헌을 한 분이 많다.

지금은 고인이 된 부친 徐丙高(47년 醫大卒·前모교 의대학장)동문은 54년 모교에 기생충학교실을 창립해 어려웠던 시기, 만연된 기생충 감염 퇴치라는 업적을 쌓았으며 모친 朴亨基여사는 고려의대 전신인 경성여의전을 졸업하고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한 바 있다.

### 가족사가 곧 한국의학사

徐동문은 모교 소아과학교수로, 부인 金敎順씨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 소아과학교주임교수로, 남동생 徐廷瑄동문은 76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모교 생화학 교수로, 弟嫂 李恩和동문은 79년 모교 가정대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영양학 강사로, 여동생 徐廷玩교수는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교수로, 弟夫 金昌鎭동문은 81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울산의대에서 신경외과학교수로 근무하고 있어 가족 8인 모두가 의학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가족 중 일곱이 박사인데 당신만 아니라고 아쉬워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당시 매우 드물었고 자랑스러웠을 소아과 여의사로서의 삶을 우리 3남매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에 백분지일이 라도 보답코자 병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徐동문의 외조부 故 朴性洙씨는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인 동양한의를 세웠고 우황청심원으로 유명한 조선무약회사의 창업자이며, 외삼촌 故 朴洪圭(53년 醫大卒)동문은 국립보건원 훈련원장을 역임했고 백부 徐丙瑞(38년 齒大卒·前서울치과외과사회 회장)동문은 치과계

에서 활약했으며 외숙모, 이모, 고모 등이 모두 의사로 활동했다. 이런 집안에서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한 모친의 아쉬움이 얼마나 컸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전기사정이 나빠 선풍기도 잘 돌아가지 않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지금의 기생충학 교과서를 집필하시면서 기생충 그림에 검은 먹물로 수많은 점을 찍으며 몇시간씩 공들여 그리시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학자의 길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곳곳이 자기 길을 개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동안 연구한다 해도 그 시간은 넉넉치 않으므로 평생 연구할 조그마한 주제를 정해 시간을 아껴 부단히 연구하면 언젠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뒷줄 좌로부터 徐동문 부부, 金昌鎭동문 부부, 徐廷瑄동문 부부, 앞줄 徐丙高동문 부부.

말씀하셨지요』

어찌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자의 길을 몸소 보여준 스승이었기에 큰 여운을 던져준다.

부친의 학자적 모범과 모친의 헌신속에서 자란 3남매가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다.

徐동문은 지난 10년간 5천3백 차례의 내시경 시술을 했으며 그 중 1백39명의 어린이에게 내시경을 이용해 동전, 열쇠, 바둑돌, 못 등 이물을 꺼내준 치료 경험을 최근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미개척분야였던 어린이 위장관 및 영양분야 연구와 용종절제술, 위루술, 식도정맥류 등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남동생 徐廷瑄동문도 모교 부설 생체

유전자이식연구소 소장으로 현대의학의 꽃인 생체유전자 이식 개발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徐동문의 장인인 金鳳煥(50년 法大卒·前국회의원)동문은 변호사로 있으며 3명의 동서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당회장·AMP동창회장), 玄在民(68년 工大卒·KAIST교수), 安敏圭(73년 文理大卒·경희대교수)동문이 또 하나의 서울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또한 徐廷旭(57년 工大卒·前과기처 차관·SK텔레콤사장)동문, 徐承遠(70년 商大卒·코오롱 고문)동문, 李義栢(70년 工大卒·LG하니웰 상무)동문 등 사촌들이 재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족 내에 전해 내려오는 삶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큰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녀들도 家業 잇겠다고

生老病死가 삶의 네 가지 중요한 큰 사건이라 볼 때 徐동문의 가족은 病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그 일을 하면서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일을 해 왔다.

徐동문에게는 아들과 두 딸이 있고 徐廷瑄동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아픈 사람을 돕는 의학을 지망하고 있다. 徐동문은 家業을 이어받겠다고 말하는 자식들에게 한없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왕이면 조부와 부친의 뒤를 따라 모교 동문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元)

지 부 순 례

남가주(LA)

# 羅城區는 「서울大區」...2천여명 동문 뚫뚫 뚫쳐

## 朴총영사가 가교역할, 화성탐사 참여 朴英虎씨등 인재 풍성

글: 權相禧(85년 社會大卒)前재미동창회보 편집인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은 남가주에서도 우리 동문들의 정신적인 유대를 한데 묶는 모토이다. 남가주지부로 불리는 이 지역 동창회는 동창회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델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운영과 회원구성 그리고 활동을 소개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본국 동문의 이해를 도와 폭넓은 교류를 통한 동창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남가주지부는 그동안 단과대학별로만 이루어지던 동창회가 1974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남가주 총동창회로 탄생되었다. 창립당시 등록회원수는 3백여 동문이었으며 초대회장에 金基柱(48년 文理大卒)동문, 부회장에 金炳濬(55년 工大卒), 劉鎮亨(51년 商大卒)동문, 그리고 총무에는 夫昌皓(64년 文理大入)동문이 창립당시의 회장단이었다. 이후 17대 회장을 거친 현재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Directory」발간을 하면서 파악된 동문수는 1천8백여 동문에 이르며 북쪽으로 옥스나드, 남쪽으로 샌디에고 경계에 이르는 추정 동문수는 2천5백여 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羅城區라고도 불리는 이곳 남가주지부는 동문회원수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을 뿐 아니라 그 활동



남가주동창회 골프대회를 마치고.

에서도 확실히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다.

현 18대 회장을 맡고 있는 李名相(59년 文理大卒)회장은 지역교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 「협력」 「영광」이라는 모교 동창회의 지표를 이곳에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가주동창회의 주요 행사로는 매년 2월에 전체 동문이 참석하는 정기총회 겸 신년파티와 4월에 서울대총동창회장배 춘계골프대회, 9월에 서울대총장배 추계골프대회, 그리고 2차례의 간담회가 있으며 각 단과대학별 또는 기별활동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소규모의 활동은 골프에서부터 학술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동문간 친목도모에서부터 생산적인 토론에 이르기까지 하고 커뮤니티봉사에서부터 음

악, 전시활동에 이르기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활발한 모임 중에서도 골프모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곳 남가주지부에서는 특히 연중 골프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도 수려한 골프코스도 인해 많은 동문골퍼들이 높은 기량과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95년부터 서울대동창회에서 중양일보사에서 개최하는 「중앙사자기 동창대항 골프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곳 동문들을 업무성향에 따라 크게 구분해보면 이곳에 정착하여 Business 생활하는 「교민형 동문」과 상사지사 또는 연구, 유학차 온 「파견형 동문」으로 나뉘어진다. 본국 경제력이 성장하고 세계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남가주가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이곳 남가주는 그 첨병역할을 하고 있고 그 지위도 크게 격상했다.

미국적이면서 한국적이라는 이곳 동문들은 사업뿐만 아니라 의료, 학술, 문화, 과학 등에 이르기까지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화성탐사에 참여한 한국인으로 朴英虎(69년 工大卒)동문이 NASA산하 제트추진연구소(JPL)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 朴起緒(59년 法大入)동문이 많은 공공건물을 건축하여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孫學植(65년 工大卒)동문이 도시미화건축상을 수상했고 沈在康(65년 商大卒)동문은 경제 및 경영에 관한 교재를 30여권 저술했으며 은행부문에 벤자민 홍(洪柄珪 60년 文理大卒)동문이 은행전문지에 경영의 탁월성을 소개받았으며

미국복합재료학회(ASC)회장인 韓弘澤(64년 工大卒)UCLA교수도 탁월한 업적으로 우수교수상을 받는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각 분야에서 최고를 지키며 서울대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교민봉사에서도 朴泰熙(63년 文理大卒)동문이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남가주 교민들을 위한 본국 행정과 교민들의 이곳 정착에 도움을 주면서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있으며 남가주 서울대 동문 목회자모임(회장 沈相殷·54년 商大入)은 동문들의 친교와 이민목회의 정신적인 향도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활동 및 봉사를 통해 본국 동문과 같이 이곳 LA지역 동문들도 주류사회와 교민사회에서 존경과 선망을 받으며 각계 각 부문에서 Role Model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 LA지부는 「한미박물관 건립기금 모금(이사장 全熙澤·64년 醫大卒)」과 「SAT II 한국어 진흥재단 모금 행사」 「한학 화합행사」 등에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오레곤지역의 「한국미술전」과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미술전시회, 曹秀美 동문음악회 등에서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연락처 李名相회장 TEL 310-631-9900)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金鎮炫 대표

## 인도주의에 입각, 북한동포 위한 모금 추진

“남북 주민간에 이해와 평화분위기 조성하는 일이 중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북한 동포돕기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출범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金鎮炫(58년 文理大卒·서울시립대학교 총장)동문을 만나 현재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 설립된 취지는.

「단체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서로 돕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 참여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근대사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대강국에 소수민족을 두고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제가 그 점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교포가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외국의 우리 교포들은 어두운 역사의 퇴적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인격 훼손을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활동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 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저희는 독자적인 통일론이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민단체나 재야운동단체와는 달리 단체의 이념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굶어 죽어가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과 같은 모금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하려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단체나 타국과는 달리 중국에서 옥수수를 구입하여 적십자사를 통해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희는 북한의 기아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교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상대 사기행각과 같이 교포들이 자력으로 감당

하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통해 민족적 수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의 능력으로 힘든 문제는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해결합니다」

— 바람직한 민족돕기운동에 대해 한 말씀.

「북한돕기운동은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어서는 안되는 북한주민에게 인간적인 동포애를 전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이 갖고 있는 대남적개심을 없애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남북간의 대립과 전쟁위험, 북한체제의 경직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남북 주민간에 이해와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5백만 해외동포의 문제에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

다. 그동안 남북간의 대립과 우리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던 동포들을 이제는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야 하고 또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세계각지의 한민족 대표들이 모여 「세계한민족대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앞으로 활동 계획은.

「현재 창설돼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지부 외에 앞으로 일본과 유럽에도 지부를 창설하고 매년 세계대회를 개최, 우리민족이 어떻게 서로 도울지 함께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한인 돕기, 입양아 돕기, 해외동포 2세 돕기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회원 가입 방법은.

「본회의 각종 모금활동을 지원해 주실 자원봉사자는 능력

껏 시간나는 대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또한 매달 자기 수입의 0.3% 이상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해 주실 회원도 모집합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해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이 되시면 본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보내 드립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 개설돼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체국 계좌번호는 012815-003910입니다. 신청후 02-734-7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동문들께 한 말씀.

「『인간화』라는 것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과의 인연을 중시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한 사회공동체,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구성원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미덕입니다」

(媛)



발족 기자회견(96. 6. 8. 세종문화회관)

통신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역

# 美넷스케이프와 견줄만한 기술력 갖춰

## 인성·화합 밑천으로 경영난 멋지게 돌파



### ⑦ (주)새롬기술

『93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시장이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자 은사님과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렸고, 첫 제품 「팩스맨」을 소개하려 수십차례 업체를 돌았지만 받아주지 않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88년 工大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졸업한 吳尙洙(사장)과 그의 학과동기 崔煥翊(연구개발부장), 趙元圭(마케팅부장)등문이 함께 창업하고 졸업동기 趙成五(社會大卒·경영지원실장)등문이 후에 가세한 (주)새롬기술.

### 「맨 시리즈」 널리 각광받아

창업 당시 15평짜리 오피스텔에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3백40평 규모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 4명이었던 동료도 지금은 60여명으로 늘었고 이중 7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연구개발에 관련돼 있다.

『컴퓨터와 결합되는 네트워크사회에서는 통신용 소프트웨어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 吳사장의 창업동기.

2백만개 이상 팔려나간 윈도우용 팩스 소프트웨어 「팩스맨」을 비롯해 PC 자동응답기 「보이스맨」, PC통신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맨」이 새롬의 대표작이다.

삐삐호출기 「페이지맨」, 화상통신시



吳尙洙사장

스템 「텔레맨」, 기업용 팩스송수신시스템 「팩스서버」 등의 신제품도 연이어 히트하면서 새롬은 종합통신소프트웨어 업체로 급부상했다.

「맨 시리즈」는 삼보컴퓨터, 현대전자, 세진컴퓨터랜드, 뉴텍컴퓨터, 한솔전자 등 PC업체에 인기가 있다. PC나 모뎀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위해 「맨 시리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롬은 이같은 성장비결로 우선 「젊은 회사」임을 내세운다. 회사 구성원의 평균 연령 26.5세, 자유로운 연구활동, 능력보다 인성과 화합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오직 기술과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다른 벤처기업과는 달라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돼 1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올해 약 8억원을 출자해 줄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을 정부

도 공인한 셈이다.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감각과 기술개발력은 미국의 인터넷 전문업체인 넷스케이프와 견줄만하다』는 것이 관련업체의 평가.

최근 PC통신에 올린 PC통신전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맨프로」가 통신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개 10여 일만에 무려 5천여명이 받아가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신기록을 연일 경신했던 것이다.

### 「새롬제품」=「최고」 인식

새롬기술은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기술동향 파악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94년 4억5천만원, 95년 20억원, 지난해 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올해는 1백20억원이 목표다.

새롬은 주문형 비디오시스템과 원격회의·원격진료음성인식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

획을 가지고 있다.

吳동문은 사운을 걸 수 밖에 없었던 순간,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은 팩스서버 개발이 1년여 동안 지연됐을 때 피를 말렸던 순간을 떠올린다.

『벤처로 성공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좋은 차를 몰고 번드르르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빌게이츠가 되겠다는 환상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뜻.

『바닥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어 성공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다 했을 땐 사고 한번 쳐볼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오 때문에 초창기부터 일인다역을 감당해야 했던 吳동문은 「사장이 개발에 참여하면 안되고 실무도 해선 안된다」는 주변의 얘기를 일거에 무시했다.

吳동문은 컴퓨터 통신기능이 앞으로 전개될 멀티미디어 환경의 완벽한 구축에 필수적인 분야라고 판단하고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새롬 제품」=「최고」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媛)



국내 최초 화상통신모뎀 「ViViTel 336 SVD」

# 동정

## 수상

▲洪允淑(46년 師大卒·시인)=최근 제42회 예술원상 문학부 문 수상자로 결정됨.

▲黃宗屹(50년 工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7월 14일 롯데 호텔에서 「제12회 성곡학술문화상」을 받

음.

▲裴慶淑(54년 法大卒·인하대 명예교수)=지난 7월 3일 「여성주간」 기념 전국대회에서 남녀 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文玉綸(67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의료보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朴庸秀(71년 工大卒·연세대 교수)=최근 「초내식성 슈퍼스테인리스강」을 개발한 공로로 「97 정진기언문문화상」 과학기술부문 대상을 받음.

▲李東煥(73년 醫大卒·순천향 의대교수)=지난 7월 10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吳世祚(80년 大學院卒·연세

대교수)=최근 「97 정진기언문상」 경영-경제도서부문 장려상을 받음.

▲朴贊秀(85년 經營大卒·고려대교수)=지난 8월 3일 미국 마케팅 학회가 수여하는 Don Lehmann

Best Dissertation-Based Article Award를 수상함.

▲田承弦(96년 音大卒·성악가)=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6회 벨베데레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함.

## 이동·선임

▲李文鎬(46년 醫大卒·한국의사국가시험위원장)=최근 열린 「제7차 대한지혈 혈전학회 총회」에서 명예회장에 추대됨.

▲金綺永(50년 醫大卒·유성영 화사 대표)=지난 7월 10일 열린 예술원 총회에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선임됨.

▲權寧禹(51년 美大卒·한국화가)=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의 「98 올해의 작가」로 선정됨.

▲金在中(53년 工大卒·선문대 공대학장)=27년간 국제기능올림픽에 봉사한 공로로 최근 스위스 상갈렌

에서 개최된 제34회 국제기능

올림픽에서 명예회원에 추대됨.

▲趙淳昇(53년 文理大卒·국회의원)=최근 연세대 국제대학원 특임초빙교수에 선임됨.

▲俞炳世(55년 農大卒·인천시 교육감)=최근 제2대 인천시 민선교육감에 재선출됨.

▲權純亨(55년 美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李信子(55년 美大卒·덕성여대 명예교수·美大同窓會長)=지난 7월 10일 열린 예술원 총회에서 예술원 회원에 선임됨.

▲李廷禹(56년 商大卒·대전중앙중학교 교감)=최근 대전중앙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함.

▲崔泳一(56년 獸醫大卒·국제와이즈맨한국협의회 사무처장)=최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제8회 색동회 회장에 취임함.

▲權赫昇(57년 商大卒·한국일보상임고문)=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됨.

▲韓炳三(58년 文理大卒·前국립중앙박물관장)=최근 송파구 풍납토성(사적 11호)의 유적 발굴을 담당할 「풍납지구 긴급 발굴조사단」 단장에 선임됨.

▲李漢雄(58년 商大卒·신협중앙회장·本會副會長)=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신협협의회 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됨.

▲權英子(59년 文理大卒·국회의원)=지난 7월 5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레」(전 문직 여성들의 어린이 돕기 모임)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申允植(59년 文理大卒·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최근 제2시대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초대 사장에 선임됨.

▲金英勳(59년 法大卒·송실대

대학원장)=지난 2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申復泳(59년 商大卒·금융결제원장)=최근 서울은행 은행장에 선임됨.

▲李一宇(60년 文理大卒·외환은행 상무)=최근 외환은행 스미스바니증권 사장에 선임됨.

▲趙益來(60년 法大卒·금호개발 사장)=최근 금호개발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함.

▲李相周(60년 師大卒·한림대 총장)=최근 포항공대에 서 열린 환동해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함.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됨.

▲玄昭煥(61년 文理大卒·前연합통신사장·本會副會長)=최근 부천YMCA 버들캠프장에서 열린 전국해

병대전우회-연합회-친목회-청통대 특별회의에서 해병대원상회복추진위원장에 추대됨.

▲朴熊緒(61년 商大卒·삼성경제연구소 사장)=최근 연세대 국제대학원 특임초빙교수에 선임됨.

▲李景載(61년 商大卒·한국은행 감사)=최근 금융결제원 원장에 선임됨.

▲李台燮(62년 工大卒·국회의원)=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 라이온스협회 제80차 세계대회에서 국제이사에 선임됨.

▲郭滿燮(62년 文理大卒·前산림청장)=최근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에 취임함.

▲李將鎬(62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MBC 통일문제 자문위원에 위촉됨.

▲元喆喜(62년 法大卒·농협중앙회장)=최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초대 대표로 선출.

▲吳東澤(63년 文理大卒·前쌍용경제연구원장)=최근 고려종합경제연구소 소장에 취임함.

▲李正子(63년 文理大卒·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최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에 선임됨.

▲蔡熙慶(63년 法大卒·前삼미그룹부회장)=지난 7월 2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삼일정공 회장에 선임됨.

▲徐相祿(63년 商大卒·국민은행경제연구소장)=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章桂成(64년 法大卒·건설교통부 교통안전국장)=최근 한국공항공단 감사에 선임됨.

▲鄭仲杞(64년 商大卒·증권예탁원 사장)=최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에 선임됨.

▲朴魯信(65년 商大卒·동양화학그룹 그룹기획조정실장)=최근 동양화학그룹 OCI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에 겸임 발령됨.

▲李成千(65년 音大卒·모교 교수)=지난 7월 10일 열린 예술원 총회에서 예술원 회원에 선임됨.

▲文勝義(66년 文理大卒·부산대교수)=최근 기상청장에 임명됨.

▲李淳鍾(66년 法大卒·한화전무이사)=최근 (주)한화 대표이사에 취임함.

▲張日武(66년 藥大卒·모교 교수)=지난 7월 2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 독물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玄珽(67년 工大卒·미도파 부사장)=최근 미도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愚澤(67년 商大卒·한양대교수)=최근 한양대학교 산업경영 연구소장에 선임됨.

▲朴性洙(68년 師大卒·모교 교수)=최근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申判湜(69년 商大卒·한라그룹 감사실 사장)=최근 한라콘크리트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洪哲(69년 商大卒·교통안전공단 이사장)=최근 국토개발연구원장에 임명됨.

▲李元馥(66년 工大入·덕성여

## 「대한민국 학술원」 총회서 학술원상 수상자·새회원 선정



李敦熙



趙長熙



權旭鉉



田世圭



金洪奎



盧在植

대한민국 학술원(회장 李賢宰)는 지난 7월 11일 제44차 정기총회를 열고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했다.

분야별 수상자로 인문과학 부문에 李敦熙(60년 師大卒·모교 교수)등문, 자연응용과학 부문에 趙長熙(60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 權旭鉉(66년 工大卒·모교 교수)등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田世圭(54년 獸醫大卒·부경대 명예교수·魚病學전공), 金洪奎(57년 法大卒·경희대 객원교수·민사소송법전공), 盧在植(57년 文理大卒·부산대 초빙교수·기상학전공)등문이 새로운 학술원 회원에 선출됐다. (元)

(10면에 이어)



대교수·本報  
論說委員)=  
최근 간행물  
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  
됨.

▲柳初夏(72년 文理大卒·충북  
대교수)=지난 27일 민주사회  
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신임 공  
동의장에 선출됨.

▲李河龍(73년 商大卒·청와대  
경제수석실 재정경제국장)=최  
근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에  
임명됨.

▲陳英俊(74년 商大卒·데이콤  
재경본부장)=최근 데이콤 시  
스템테크놀로지(주) 기획관리  
부부장 이사에 선임됨.

▲崔正衍(74년 醫大卒·모교 교  
수)=최근 모교 병원 소아외래  
진료실장에 선임됨.

▲朴尙彥(75년 工大卒·한국화  
학연구소 화학기술연구단 책임  
연구원)=최근 화학·화공분야  
전문학술지인 「Research on Che-  
mical Intermediates」誌의 편집인  
에 선정됨.

▲李相韓(75년 齒大卒·경북대  
교수)=최근 경북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장에 취임함.

▲林英鎭(76년 工大卒·코오롱  
상사 신규사업 및 유통사업본  
부장)=최근 부동산 개발회사  
인 SEED50(주)의 대표이사 전  
무를 겸직하게 됨.

▲金珠炫(77년 看護大卒·청주  
전문대학교수)=최근 강원대학  
교 교수로 부임함.

▲申喆湜(77년 商大卒·재경원  
통산과학예산담당관)=최근 재  
정경제원 건설교통예산담당관  
으로 자리를 옮김.

▲安世英(77년 商大卒·청와대  
비서실 산업정보비서관 과장)  
=최근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  
장에 임명됨.

▲金鍾聲(77년 醫大卒·모교 교  
수)=최근 모교 병원 소아중환

자 실장에 선임됨.

▲梁浩徹(79년 大學院卒·前동  
서경제연구소 부사장)=최근  
미국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한  
국지점 대표에 취임함.

▲李壽月(80년 社會大卒·쌍용  
투자증권 싱가포르사무소 차장)  
=최근 인도네시아합작법인 준  
비위원장에 선임됨.

▲李宗奎(80년 經營大卒·한국  
은행 경제조사과 조사역)=최  
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과장에 선임됨.

▲安泰植(80년 商大卒·아주대  
교수)=최근 모교 경영대학 교  
수로 부임함.

▲崔善鎔(80년 音大卒·KBS열린  
음악회 전임지휘자)=최근 창  
단원 경기도립 관소오케스트라  
초대 예술감독에 선임됨.

▲南相烈(83년 社會大卒·산업  
연구원 정책연구부 수석연구  
원)=최근 통상산업부 장관 자  
문관에 파견됨.

▲康南美(83년 看護大卒·해전  
여자전문대학교수)=최근 건국  
대학교 교수로 부임함.

▲南惠卿(83년 看護大卒·모교  
병원 수간호사)=최근 경원여  
자전문대학 전임강사로 부임  
함.

▲李陽東(83년 工大卒·SDS 해  
외서비스 사업팀장)=최근 LG  
인터넷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됨.

▲孫幸美(87년 看護大卒·모교  
조교)=최근 경원여자전문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함.

▲趙錫來(11기 AMP·효성그룹  
회장)=최근 연세대 국제대학  
원 특임 초빙교수에 선임됨.

▲朴昌圭(14기 AMP·삼애리본  
회장)=최근 일본 도쿄 다가지  
오상과학의 객원교수로 위촉  
됨.

▲姜聖模(17기 AMP·린나이코  
리아 회장)=최근 북한이탈주  
민후원회 초대회장에 임명됨.

▲金漢九(22기 AMP·동양철관  
사장)=최근 한국케이블TV 총  
북방송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됨.

▲林元俊(34기 AMP·원우종합  
건설 대표)=최근 창립된 한국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초  
대회장에 선임됨.

▲宋榮大(2기 ACAD·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최근 MBC  
통일문제 자문위원에 위촉됨.

▲金遺腹(4기 ACAD·前국회의  
원)=최근 하  
얏트호텔에  
서 국제 로타  
리 제3640지  
구(서울) 총  
재에 취임함.

▲沈完求(22기 ACAD·울산시  
장)=지난 7월 15일 울산이 광  
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초대 울  
산광역시장에 취임함.



▲沈完求(22기 ACAD·울산시  
장)=지난 7월 15일 울산이 광  
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초대 울  
산광역시장에 취임함.

## 행사·출간

▲文太俊(50년 醫大卒·「나라를  
생각하는 의사를 모임」 공동대  
표)=최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가짐.

▲鄭璟洙(50년 齒大卒·치과의  
원장)=최근  
「동심치과의  
원」을 송인동  
우 경 빌딩  
201호에 이전  
개업 함.(232



-3046)  
▲李榮德(52년 師大卒·前국무  
총리)=최근 聖山 張起呂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개최  
함.

▲鄭喜卿(55년 師大卒·국회의  
원)=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에서 「한국정치현실과 여성정  
책개발」이라는 주제로 기조강  
연함.

▲尹鍾赫(57년 文理大卒·홍익  
대 명예교  
수)=최근 코  
스타리카 쌍  
호세市에서  
개최된 제14  
차 세계커뮤



니케이션 총회 및 세미나에서  
「Communication in English and  
its Global Values」란 주제로 발표  
함.

▲韓鐸琛(57년 法大卒·前헝가  
리대사)=지난 7월 4일 공간권  
국가로는 처음 수교관계를 맺  
은 헝가리와 수교 교섭과정  
과 초대 헝가리 대사로서의 회  
고를 담은 저서 「다뉴브강의  
푸른 물결」 출간기념회를 가짐.

▲咸正鎬(57년 法大卒·대한변  
호사회회장  
)=지난 28일  
변호사회관  
에서 자문위  
원과 각 지방  
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45주년 기념리셉션을 개최함.



▲高昌舜(57년 醫大卒·모교 교

수)=지난 7월 14일 모교 소아  
임상강의실에서 「갑상선종의  
진단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고  
별강의함.

▲許 程(57년 醫大卒·모교 교  
수)=지난  
10여년간  
WHO자문관  
으로 활동한  
러시아·중국·  
몽골·베트남



등 아시아 전통의학 현장을 정  
리, 「아시아의 전통의학을 찾아  
서」를 펴냄.

▲崔鍾碩(57년 齒大卒·치과의  
원장)=최근 미국에서 영구 귀  
국해 성동구 하왕십리에 「파티  
마 치과의원」을 개원함. (전화:  
292-1161)

▲金璟東(59년 文理大卒·「새로  
운 미래를 준  
비하는 사람  
들」 공동대  
표)=최근 프  
레스센터 국  
제 회의장에  
서 「통일로 가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  
함.



▲鄭鎮弘(6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몇년간 전문  
지에 발표한  
글을 모은  
「하늘과 순수  
와 상상」(도



서출판 강)을 펴냄.

▲邊勝鳳(61년 工大卒·대한전  
기학회 회장)=최근 과학기술  
회관에서 대한전기학회 창립50  
주년 기념식과 축하리셉션을  
가짐.

▲金京熙(61년 文理大卒·한국  
출판연구소 이사장)=지난 25  
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출  
판경영 합리화를 위한 재고도  
서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8회 출판포럼을 개최함.

▲尹世榮(61년 法大卒·SBS문화  
재단이사장)=지난 29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환경운동연합  
과 공동으로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한 모색」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裴茂基(62년 商大卒·중앙노  
동위원회 위  
원장)=지난  
16일 롯데호  
텔에서 열린  
한국인간개  
발연구원(회



장 崔昌洛)주최의 인간개발경  
영자연구회에서 「21세기를 향  
한 신노사문화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함.

▲姜敏求(62년 行大院卒·한국  
기독교실업인회 회장·行大院同窓  
會長)=최근 경기 안산시 미라  
마호텔에서 안산청년지회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함.

▲羅鍾一(63년 文理大卒·한국  
유럽학회회장)=지난 7월 14일 장

충동 서울클럽에서 山下新太郎  
주한일본대사를 초청, 「한-일  
관계의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  
회를 개최함.

▲韓昇洙(63년 行大院卒·국회  
의원)=최근  
영국 요크대  
졸업식에서  
명예박사 학  
위를 받음.



▲卞柱仙(64년 師大卒·한국걸  
스카우트연  
맹총재·本會  
副會長)=최  
근 전북 덕유  
산에서 15개  
국 7천여명의



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소중  
한 우리, 우리가 만드는 세계」  
를 주제로 제7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를 개최함.

▲姜雄植(64년 商大卒·동남합  
성부회장)=최근 현대갤러리에서  
가졌던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유화전」 수익금 5천7백만  
원을 심장병 환자를 위해 일하  
는 김미카엘라 수녀에게 전달  
함.

▲金 旻(64년 音大卒·서울바  
로크합주단  
단장)=지난  
7월 7일부터  
26일까지 독  
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3개국 8개도시 순회연주를  
가짐.

▲韓明熙(64년 音大卒·국립국  
악원장)=최  
근 예약당에서  
민속음악  
대제전의 네  
번째 무대인  
「경기·서도민



요-우리노래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공연을 개최함.

▲表相基(65년 工大卒·한국무  
역대리점협회장)=최근 제주  
프린스호텔에서 車東世한국개  
발연구원장과 金東吉태평양시  
대위원장을 초청, 「정보화시대  
의 무역경영 전략」이란 주제로  
「회원사 대표자 하계세미나」를  
개최함.

▲金學俊(65년 文理大卒·국가  
기록연구재  
단설립준비  
위원장)=지  
난 7월 5일  
세종문화회  
관에서 국가



기록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  
한 민간연구재단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짐.

▲曹圭一(65년 文理大卒·한국  
4H후원회장)=최근 한국4H운  
동 50주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선발된 농촌청소년 3백여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고성군 세계  
잼버리수련장에서 「97농촌청소

(12면에 계속)

## 청소년보호위원회 姜智遠부장검사 선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7월 5일  
설립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 姜智遠(72년 文理  
大卒·서울고검 부장검사)동  
문이 임명됐다.

이밖에 明東星(77년 法大  
卒·법무부 부장검사), 尹正光  
(60년 師大卒·교육부 중등장  
학관), 孔宗烈(79년 社會大卒  
·정보통신부 정보기관심의  
관), 崔南鎭(34기 ACAD·경찰  
청 방법국장)등문이 당연직  
위원에, 金昌國(58년 法大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



대표), 洪性萬(67년 文理大卒  
·경향신문 논설주간·本報 論  
說委員), 宋 復(60년 文理大  
卒·연세대교수), 柳敏榮(61년  
師大卒·단국대 교수)등문이  
위촉직 위원에 선임됐다. (元)

## 「만만·滿滿·漫漫」 전시회 미대 출신 10名 뜻 모아



尹東天동문(가운데 콧바람)이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열 명의 젊은 동문들이 「만만·滿滿·漫漫」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는 설치(오브제, 키네틱, 비디오)라는 미술형식을 통하여 현대적인 감수성을 비교적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여러 작업경향을 대별해 봄으로써 현대미술의

실험의식과 다양한 표현양식을 드러냈다.

전시회에는 沈鐵雄(82년卒), 林永善(83년卒), 尹永錫(84년卒), 尹東天(85년卒), 孔成勳(87년卒), 鄭尙坤(87년卒), 鄭栖英(87년卒), 申景姬(88년卒), 洪秀子(89년卒), 朴和英(92년卒) 동문이 참가해 젊은 동문들의 실험정신을 다채롭게 표현했다. (元)

(11면에 이어)

년 문화탐방」활동을 가짐.

▲曹海寧(65년 法大卒·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최근 「3백만 새마을가족 경제살리기 국민저축 3조 달성 평가대회」를 개최함.

▲李一曠(65년 商大卒·대우건설사장)=지난 7월 13일 한국전통양식을 가미하여 건축된 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 준공식에 참석함.

▲申明浩(66년 法大卒·주택은행장)=지난 7월 10일 주택은행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楊秀吉(67년 工大卒·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최근 연구원 회의실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李建榮(68년 工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지난 16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자동차포럼(회장 俞

浣)과 공동으로 미국 하버드대 존 카인 교수를 초청, 도시교통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崔 洸(70년 商大卒·한국조세연구원장)=최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세계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林脈澤(75년 文理大卒·세계마당극 큰잔치 실행위원장)=지난 27일 「세계마당극 큰잔치 97 경기 과천」 종합상황실 개소식과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가짐.

▲韓寶均(75년 齒大卒·치과의원장)=최근 한국치과교정학회 부산지부에서 「Biomechanics of TMJ Disorders and Orthodontic Treatment」로 강의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그룹 홍보담당전무)=지난 7월 12일 한국고등교육연수원 초청으로 전국

대학 홍보책임자 특별과정에서 「21세기 정보사회와 대학홍보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함.

▲安秉文(76년 醫大卒·인천성민병원장)=최근 병원 강당에서 개원 4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희의대 부속병원과 모자병원 체결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짐.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시 소재 무궁화 수련원에서 제32회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를 개최함.

▲崔勝憲(77년 醫大卒·인천중앙길병원 행정부원장)=최근 영국 맨체스터대학에서 보건의

료 최고관리자 정책과정 연수차 출국함.

▲方熙宣(79년 法大卒·수원지법 판사)=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함.(주소:서초구 서초동 1709의5 우송빌딩 403호. 전화: 594-2900)

▲俞弘濬(80년 人文大卒·영남대 박물관장)=최근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낙서화가 바스키아는 무엇을 낙서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함.

▲金玟秀(83년 美大卒·모교 교수)=최근 디자인에 대한 발상 전환을 제안한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솔출판사刊)를 펴냄.

▲朴洛善(83년 齒大卒·치과의원장)=최근 부천에서 「탐치과 의원」(032-324-3241)을 개원함.

▲韓成益(83년 齒大卒·강남성모병원 교수)=최근 「턱, 얼굴 외과 클리닉」(590-2601)을 개설함.

▲金鳳九(84년 齒大卒·치과의원장)=최근 양천구 신정동에서 고려치과의원(694-2875)을 개원함.

▲金東均(84년 齒大卒·치과의원장)=최근 고양시 일산에서 주엽치과의원(0344-918-2020)을 개원함.

▲朴恩德(86년 美大卒·홍익대 교수)=최근 아동화의 체계적 이해와 지도를 위한 「은덕이의 아동화 이야기」(양서원刊)를 펴냄.

▲尹 衡(91년 音大卒·성악가)=최근 미국 커티스음대 성악과 장학생으로 선발돼 8월부터 오페라가수를 위한 전문과정을 시작함.

▲盧正烈(95년 社會大卒·개그



님.

(정리=盧志元기자)



##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양동섭 군(97년 農大卒)·박영희 양=8월 31일 14시.

\*홍순선 군(96년 藥大卒)·허진영 양=9월 6일 12시30분.

\*최구순 군(97년 農大卒)·심정화 양=9월 7일 12시30분.

\*이문창 군(88년 經營大卒)·박인숙 양=9월 7일 14시.

\*김태진 군(88년 師大卒)·조수연 양(89년 家政大卒)=9월 7일 15시30분.

\*정창권 군(94년 師大卒)·이경애 양=9월 20일 12시30분.

\*심만수 군(96년 工大卒)·서원경 양=9월 20일 14시.

\*류수열 군(91년 師大卒)·조 숙 양=9월 20일 15시30분.

\*김원철 군(91년 農大卒)·김선화 양=9월 21일 11시.

\*신우호 군(92년 師大卒)·이선화 양=9월 21일 12시30분.

\*조용섭 군(91년 社會大卒)·권준희 양=9월 21일 15시30분.



대한적십자사 鄭元植 총재

# 재학때 「페스탈로치그룹」 추억에 남아

## 성실·봉사·정직이 좌우명—조용필의 「친구여」 즐겨 불러

모교교수, 문교부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鄭元植(54년 師大卒) 동문이 지난 8월 1일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 총재에 취임했다.

鄭동문이 태어난 곳은 황해도 재령이며 해주동중 4년제를 마치고 해방후 서울로 내려와 대학예과 2년과정을 거쳐 48년 모교에 입학했다.

鄭동문은 4년 동안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활약해 온 관계로, 기자는 그가 아직 취임하기 전인 7월 25일 녹음이 짙은 뜰이 바라다보이는 세종연구소의 방에서, 그동안의 활동 및 한적 총재로서 갖고 있는 앞으로의 포부 등을 들어 보았다.

—취임소감은.

『할 일이 많은 직책이어서 대단히 중압감을 느끼지만 사회와 인류에 봉사를 하게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본래 스위스의 페스탈로치에 심취한 교육자로서 후학들에 대한 봉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번 한적에서 봉사로 끝내게 돼 감회가 깊습니다. 91년 남북 고위급회담을 위해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쪽 인사가 저의 친척이 먼 일가까지 합쳐 126명이 있다고 귀찮게 주었으나 많은 이산가족이 고대



하고 있는 상황에 나만 만날 수 없어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다른 이산가족과 더불어 친척들을 만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적의 사업내용은.

『구호사업을 비롯한 사회봉사, 병원, 혈액, 보건, 안전, 청소 사업, 이산가족찾기, 원폭피해자 복지, 국제협력, 적십자이념 보급, 129응급환자정보센터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침은.

『생명을 존중하는 적십자의 본연의 정신에 따라,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계기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추진하여 적어도 생사 확인은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여한 경험과 92년 남북기본합의

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유일한 창구인 한적에서 몇가지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십자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좌우명은.

『성실하게 사는 것, 봉사하며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죽도록 거짓없으라」는 말씀을 항상 새깁니다』

—평소 취미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걷다 보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훗날을 구상할 수 있지요. 또한 대중가요, 오페라, 뮤지컬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대중가요 중에서는 하지영 시인이 작사하고 조용필씨가 부른 「친구여」를 노랫말이 좋아 즐겨 듣습니다』

—가족관계는.

『딸이 네 명인데, 맏딸이 이화여대부속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동생들도 언니를 따라 모두 이대를 졸업했어요. 모두 출가하여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좀 쓸쓸하

지요』

—학창시절 기억은.

『교육학과 재학시절 「페스탈로치그룹」이라는 연구모임을 꾸려 나간 적이 있지요. 李榮德 前국무총리도 바로 이 모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 이벤트」라는 행사도 하며 재미있게 보냈지요. 그리고 3학년때 6·25로 인해 입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가지 보람있는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사병을 배치할 때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싫어서 건의를 했더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후 1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KMQT(Korean Military Qualification Test)란 심리검사를 개발해 이때부터 신병검사때 적성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됐지요』

—동문들께 한 말씀.

『한적은 국민 공동의 사업으로서 국민이 내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반강제적인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국민들이 한적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여 그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유인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媛)

# 동 창 회 소 식

## 치과대학

### 회보·달력·친목 사업별 위원회 구성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지난 7월 4일 모교 교수 회의실에서 임원진과 시도회장, 동기회장 등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 발전을 후원하는 일과 동문

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동창회의 임무』라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97년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현재 새로운 동창회 명부를 제작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모교 장기해의과전 교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상하는 것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편성기로 했다.

또한 부회장을 중심으로 사업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사업에 奇昌德·金基燮부회장, 달력 제작 사업에 朴永淑·金京愛부회장, 회원 친목 사업에 閔丙一·黃義康·李起澤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제1회 동기회(회장 吳應瑞)에서 동창회 발전에 공헌한 金회장과 金光男 명예회장에 공로메달을 증정했다.

한편 同會는 6월 30일자로 제1호 동창회보 3천5백부를 발간해 배포함으로써 동창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으며 이달중에 회원명부를 발간기로 했다.



좌로부터 신임 宋회장, 전임 金회장, 朴熙伯, 任允明동문.

## 재미의대동창회

### 14차 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재미의대동창회(회장 金基台)는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디트로이트 Marriot호텔에서 姜信浩 명예회장, 모교 李純炯 학장을 비롯한 1백5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제14차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3일부터 시작한 학술대회에서는 의학 각 분야의 석학들이 매일 5시간의 학술토론을 가져 깊이 있는 강의와 참신한 신의학 동향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5일에 열린 골프대회 결승

전에서 남자부에서 李桂錫동문, 여자부에서 金忠圭동문 부인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만찬무도회는 任允明총무의 개회사와 우렁찬 교가제창으로 막을 올렸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宋寬鎬(58년 醫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전임 金基台회장과 신임 宋회장이 미주 동문들의 정성으로 모은 12만7천1백26불을 朴熙伯함춘회관건립추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 간호대학

### 창립 90주년 기념사업 진척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7월 14일 모교 교수 회의실에서 李笑雨학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은 지난 5월 12일 있었던 모교 교사신축 기공식에 많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同會는 사업계획 논의를 통해 창립 9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각 기별로 50만원씩을 찬조받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야유회는 총동창회 등산대회에 참여해 열기로 의결했다. (元)

## 서울대 트리비아

Q4. 모교의 상징인 徽章의 의미는?

A. 펜과 횃불의 교차는 학문과 선구의 상징이며, 올리브잎은 승리의 의미이다.  
▲올리브잎과 펜, 횃불과의 교차점에서 어느 것이 위에 있는지 주의.



## 문리대 64학번

## 30년만에 「마로니에회」로 뭉쳐



64년 30개학과에 4백명이 입학했던 문리대 64학번 동기들이 지난 7월 4일 프레스센터 중연회실에서 동창회를 창립했다.

졸업 후 30년만에 만난 동문들은 모임의 명칭을 「마로니에

회」라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비는 3만원으로 정하는 등 총 15조의 회칙을 통과시켰다.

참석자들은 회장에 鄭昭盛(단국대 교수)동문, 부회장에 辛鉉雄(문화체육부 차관보), 金

泳夏(한국과학기술원 고분자연구부장), 全東成(경향신문 편집부장), 高惠玲(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 任敦姬(동국대 교수), 朴光子(충남대 교수)동문을 선출했으며, 사무총장에 許永武(우미물산 대표)동문을 선임했다.

이 행사를 위해 姜正文(대흥기획 전무)동문이 회원명부 제작을 도맡아 동문들간의 연락을 도왔다.

또한 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던 중 몇 명의 동문이 혼기를 맞은 자녀를 소개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기도 했다.

마로니에회 회원들은 한일회담 반대데모에 참여했던 기억, 한 번도 제때 학기말 시험을 치뤄 보지 못한 기억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이 모임의 연결고리라고 말했다.(연락처: 709-2446 鄭昭盛)

## 치대 1회

## 졸업 50주년 기념모임 개최



좌로부터 池憲澤, 吳應瑞, 鄭樂淵, 白尊濟, 金讚淑, 柳璨浩동문.

치대1동기회(회장 吳應瑞)는 지난 7월 11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졸업 50주년 기념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吳회장을 비롯해 柳璨浩, 白尊濟, 池憲澤, 鄭樂淵동문이 참석했으며 치대 金讚淑동창회장이 방문해 축하했다.

당시 소공동에 위치한 치대 입학 당시 38명이었던 동문들은 47년 7월 11일 졸업, 현재 16명이 남아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치대 3대 학장이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李春根동문의 마스크상을 제작하여 모교에 전시하기로

했다.

치대 1회 동기로서 鮮于良國, 金周煥, 金英海, 池憲澤, 吳應瑞, 卞鍾秀, 李烈熙, 韓澤善, 崔尙烈, 朴相模, 金裕善, 金熙耿, 河聖秀, 金致源, 崔基陳, 金學聖 동문 등이 현재까지 모임을 계속 가지며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 서어서문학과

## 기별대표 새 도약 결의

서어서문학과동창회(회장 安哲熙)는 지난 7월 11일 동창회관 지하 「서라벌」에서 기별대표자 모임을 가졌다.

同會는 창립된 지 오래됐으나 학과의 연륜이 짧아 그간 동문간의 모임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安회장은 현재 삼성전자에 몸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파견근무를 떠나 있어 이날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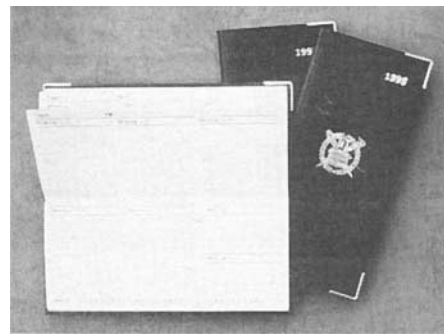


이에 20여명의 참석자들은 신입회장에 申哲壽(82년入·중앙도서관 대표)동문(사진)을 선출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매년 발간되고 있는 동문주소록이 틀린 곳이 많아 기별 대표들이 각 기별 확인작업을 통해 97년도 동문주소록을 새로 발간하기로 했다.

회비는 자동이체방식으로 월 3천원씩 걷기로 하고 이를 동문모임과 소식지 제작에 사용하기로 했다.

## 98년 「포켓용 DIARY」를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8×17.2cm)」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사용할 때마다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 여러분께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총 동창회 사무처

## 토목공학과 도시전공

## 전임 임원에게 감사패 전해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동창회(회장 朴頌桓)는 지난 6월 28일 관악캠퍼스 38동 앞 잔디밭에서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특히 토목공학과에 도시공학전공이 창설된 이래 작년말까지 사무실에서 봉직해 온 金柄昊건축주사의 정년퇴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참석자들은 金주사에게 기념패와 기

념품, 금일봉을 전달하며 오랜 기간 학과발전에 헌신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朴회장을 재선출했으며 신임 총무에 金宰永(모교 전임 강사)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동문들은 張德亨 前회장과 李畊春 前총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 상대 27회

## 새 회장에 朴柱鐸동문 선출

상대27동기회(회장 金仁相)는 최근 역삼동 「하로동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동문들은 신입회장에 朴柱鐸(수산중공업 회장·冠岳會 監査)동문(사진)을 선출하고 간사에 李煌培(소점코리아 사장), 鄭泰成(수출입은행 경영전략팀장)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짝수달 셋째 주 토요일에 골프모임,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등산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4월에 관악산, 5월에 청계산, 6월에 검단산을 등반한 바 있다.



골프모임의 대표는 孫再桓(금강제화 부사장)동문, 간사는 張哲俊(에어미디어 사장)동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등산모임의 대표는 崔海寬(보람은행 지점장)동문과 金富益(부익양행 사장)동문이 맡아 보고 있다. (연락처 518-8866 朴柱鐸)

## 사회학과

## 가족 걷기대회 통해 친목 도모

사회학과동창회(회장 朴晟容)는 최근 남산에서 동문들과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친목의 장을 열었다.

1백4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은 남산 국립극장에서 집결하여 순환도로를 따라 송의음악당, 식물원, 팔각정, 서울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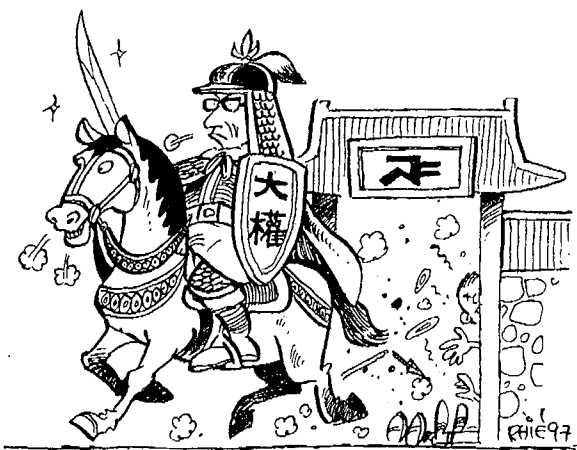
타워호텔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는 同會 창립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체행사로서 그동안의 공식적인 회의에서보다 선후배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해 인간적인 이해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였다.

(媛)

만평

李元馥



出校 — 修身制校 平天下

# 모교소식

## 해외거주자 자녀 특례입학 2001학년도부터 자격 강화

모교는 정부기관, 상사,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해외거주자 자녀의 특례입학 자격을 2001학년도부터 「해외학교 2년 이상 수학자」에서 「중등 교육과정 2년포함, 5년이상 수학자」로 대폭 강화한다.

지난 7월 10일 학장회의에서

심의된 「해외거주자 자녀 특례입학」 응시 자격에 따르면 2000학년도 입시까지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해외 수학기간 2년 이상」으로 하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외국 수학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 중앙도서관 종합 학술정보 「솔라스넷」으로 검색 가능

모교는 최근 안방이나 회사에서도 중앙도서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자재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종합학술정보네트워크 「솔라스넷(SOLARSnet)」을 개통해 운영중에 있다.

인터넷에 개설된 모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백20만권에 달하는 학술서적 이외

에도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1만2천여종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자저널 1천여종 구독, 해외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열람, 학술연구자 동정 및 한국학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는 <http://solarsnet.snu.ac.kr>

###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대학살롱」중에서—

### 주의! 과소비병

◇신종병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긴장하게 한다는데, 쌀롱자 그 내막을 알아보았더니 바로 「과소비병」이라고.

카드라는 군이 바로 그 병의 원인인데 그 세균은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 어디든 적응해 번식한다고. 중형자동차·유명의류·휴대폰·유흥업소 등 압처럼 어디든 퍼지고 에이즈처럼 면역성이 없는 이 병은 체질적으로 타인과 같아야만 하는 신세대의 발병률이 높다고.

아직은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쌀롱자, 아무리 번식력이 뛰어나도 세균은 있을 만한 데 있는 것.



재미동창회 李丙俊명예회장(사진 右)이 鮮于총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 鮮于仲皓총장

### APRU 운영위원회에 선출

최근 모교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환태평양 12개 국가의 21개 대학총장들은 남가주대(USC)에서 「환태평양 대학협회

(APRU)」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APRU 초대 운영위원장에 USC 스티븐 샌플 총장, 운영위원에 모교 鮮于仲皓총장 등 6개 대학 총장을 선출했다.

한편 鮮于총장은 이번 방미 중에 UCLA와 USC, 칼텍 등 대학들의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金信福교무처장과 함께 남가주 동창회(회장 李名相)가 주최한 환영회(사진)에 참석하기도 했다.

## 농생대·약대 학장 새로 취임 자연대 학장·도서관장은 유임

지난 27일자로 임기 만료된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에 金浩卓(64년 農大卒)농경제학과 교수, 약학대학 학장에 李民和(59년 藥大卒)제약학과 교수가 새로 취임했다.

신임 金浩卓학장은 71년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모교에 부임해 동력자원연구소 정책부장, 농업경제학회 회장, 모교 농생대학장보 등을 역임했다.

신임 李民和학장은 72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모교 병원 약제부장, 약제학회 회장, 병원약사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자연과학대학 張浩完



金浩卓학장



李民和학장

(69년 文理大卒)학장과 중앙도서관 秦敎勳(60년 文理大卒)관장은 유임됐다.

## 하계 「농활」다녀와 충남·경기 8개지역

모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9일간 충청남도 서산, 아산, 예산, 홍성, 청양, 온양, 당진과 경기도 평택 등 8개 지역에서 97년 하계 농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표지 사진 참조>

### 사범대학

### 중·고교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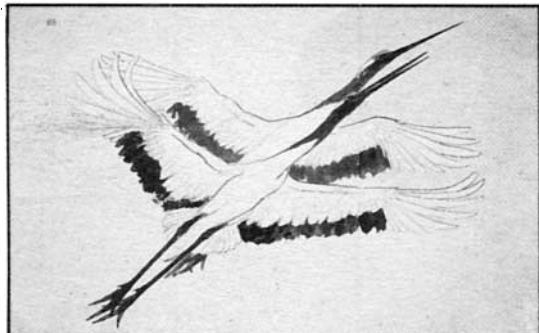
### 인터넷에 게재

사범대학(학장 黃載璣)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교 15개 과목의 교과내용을 해설한 참고서를 제작, 9월중에 인터넷(<http://ischoolsnu.ac.kr>)에 올리기로 했다. (變)



# 서울大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제 233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8월 15일

[21]

## 7월호를 읽고

### 자신보다 민족위해 노력하는 동문이기를



국가의 운명을 하나의 커다란 배에 비유한다면, 함께 가야 할 목적지를 잘 파악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잘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전체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국제적 품격을 해쳐 나가는 지도자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반드시 서울대인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자질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이익이 아닌 후손들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金恩植(81년 農大卒)국민대 교수

### 회보를 졸업과 동시에 받아봤으면...



작년 동창회관에서 결혼을 한 이후 동창회보를 받기 시작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동창회보를 받고 나서 동창회에 대한 나의 관심이 더욱 커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회보에 실린 필자나 동정란을 채운 동문을 TV나 일간지에서 볼 때 웬지 모를 반가움과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이름만 들어 본 그들, 단지 동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학창시절을 같이 한 친구들이 회보에 실린다면 그 반가움은 갑절 커질 것이다.

회보에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졸업과 동시에 회보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鄭東壽(91년 社會大卒)삼성자동차 산업조사팀



## 딸 부잣집 이야기

金順英(50년 法大卒)前창덕여중 교장

전에 내가 살던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씨댁의 어른들은 며느리를 들이면서 대를 이을 떡두꺼비같은 아들을 더도 말고 셋만 낳으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곧 수태를 하였고 시부모는 틀림없는 아들이라 믿고 이름부터 지었다.

###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세상에 나왔으니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베풀라는 뜻에서 베풀 선(宣), 한 일(一) 자를 따서 宣一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낳고 보니 딸이었다. 두번째도 딸이었다. 시부는 간혹 그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름을 或二라고 지었다. 딸 둘쯤 낳고 아들을 낳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일이므로 세번째 아이를 기대했다. 그러나 또 딸이었다. 좀 과하다 하여 셋째 딸의 이름을 過三이었다. 넷째부터는 초조해졌다. 하지만 또 딸이었다. 너무 심하다, 삼신할머니도 너무하신다는 푸념의 뜻에서 붙여진 이름은

甚四였다. 다섯번째도 역시 딸이었다. 이제는 분하다, 너무 기대를 무너뜨려서 살맛이 안 난다시며 五憤이라고 지었다. 여섯번째도 딸을 낳았다. 참을 수가 없이 성이 난다는 뜻에서 六怒라 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대체로 딸이 여섯이면 일곱번째는 아들이라던데, 기대를 하고 아이를 낳았다. 어김없는 딸이었다. 그래서 七驚이 되었다. 다음에 또 딸을 낳으니 八嘆이다. 나오는 것은 탄식이요, 한숨뿐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내 팔자가 이리도 기박하여 한 탕 줄에 딸만 줄줄이 구슬 꿰듯 나오는 고'하고 탄식했다. 다시 수태를 하였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하도 서글퍼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아홉 번째 딸의 이름은 九笑가 되었다.

시부는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럽다 하여 한동안 두문불출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본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한치전너 조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 앉히고



말했다. 『하늘로부터 받은 자식 복은 이뿐인 것 같으니, 주어진 복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제 모든 욕심을 버리고 분수대로 살자』고 하였다. 아들 내외는 아홉 공주를 슬기롭게 길러 한결같이 시집을 잘 보냈다. 후에 이 딸들은 부모님을 잘 모셔서 그 고을 사람들은 여자아이들만 보면 그 딸부잣집 딸만큼만 효녀가 되라고 일렀다.

### 주어진 복 감사히 받아들이

오래 전부터 여성들은 身言書判 곧 신수·말수·문필·판단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전통적인 婦德이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올바르게 길러 곧은 사람을 만들어 사회의 부름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여성 교육의 근본 이념이기도 하였다.

## 오해가 부른 「공문서 위조죄」

劉昶惠(94년 家政大卒)국방부 사무관

우리의 대응에 선생님들의 다음번 반응은 어떤 것일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각자 교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학생주임의 벼락같은 범인 검거(?) 작업이었다. 주동을 했던 나는 바로 교무실로 불러 갔고, 다른 학생들은 공모했다는 죄로 운동장을 20바퀴나 돌아야 했다.

교장 선생님이 친필로 쓴 글을 떼어내고 다른 글로 바꾼 내게 「공문서 위조죄」라며 침을 튀기고 말씀하시는 학생주임의 말에 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당장 퇴학감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불호령에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의 호소로 3일 근신으로 마무리를 졌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3일 근신으로는 용서가 안되는지 나의 생활기록부 「준법성」란에 「다」를 기입하도록 지시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해가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고 관용과 여유가 부족했던 그 당시 학교사회의 한 측면이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시끄러운 학원가를 보면서 정부의 강경대응에 옛날



상처가 다시 살아난다.

### 관용과 여유 필요하다

귀여운 장난이 「공문서 위조죄」로 둔갑하듯이 학생들의 한때의 반항과 치기가 형법상의 주요 범죄로 둔갑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학교에서 부드러운 선도로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 효과만을 노리고 폭력학생으로 그들을 검거한다고 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학교사회의 피해자라고 느끼는 학생들 또한 많을 것이다. 기성사회의 기준으로 그들을 재단해서는 안되며 그들 나름의 생활을 이해하려는 학교와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관용과 여유를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무리일까?



한국거미연구소 金胄弼교수

# 거미에 매료돼 30년 외길 인생 걸어와

## “철사보다 강한 거미줄로 첨단 소재 만들겠습니다”

『거미로 할까 지렁이로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렁이도 산업폐기물을 먹고 토양 박토를 좋게 하여 연구하고 싶었지만 시간과 능력은 한정돼 있어 거미만을 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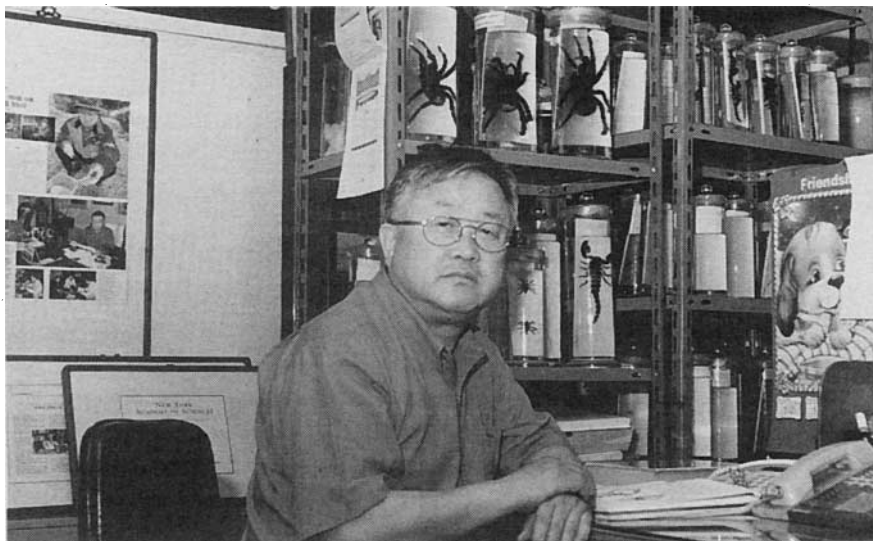
30여년간 거미연구라는 외길을 걷고 있는 金胄弼(67년 文理大卒·동국대교수)동문을 만난 한국거미연구소는 지하의 어두컴컴함과 거미사진·표본으로 웬지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사람의 손길이 드문 곳에 거미줄로 존재를 나타내는 거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金동문은 만화 주인공 스파이더맨에서, 아니면 누구나 느꼈을 거미줄의 정교한 짜임새에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미의 매력을 발견했을런지 모르겠다.

『60년대 졸업 당시 동물학에서 유전학·세포학은 첨단분야지만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연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류생태분야는 부지런하고 현미경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분야였지요』

### 무공해 농업에 이용

첨단분야는 단시간에 가치가 하락하는데 반해 분류생태분야는 오래될수록 골동품 같이 비싸지고 노하우가 축적된다고 말하는 金동문은 85년 세계에서 유일한 민간 거미연구 기관인 「한국거미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거미」라는 잡지를 발간해 세계 4백여곳에 13년째 배포함으로써 국내 거미에 관한 연구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거미의 실용화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

현재 그가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과제는 두가지. 하나는 무공해 거미농사이고 또 하나는 거미줄을 이



용, 첨단 소재를 만드는 분야이다.

『해충박멸을 위해 살포된 농약은 무수히 많은 거미를 사라지게 했고 그 결과 여러 종류의 해충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더 강도높은 농약사용이 각종 토양오염을 비롯해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지난 2년간 농촌진흥청에 딸린 잠사곤충연구소와 더불어 논거미를 이용해 농약을 쓰지 않고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에 위치한 실습장(5백평 규모)에서 거미를 이용해 4가마의 쌀을 생산, 거미 무공해 농사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거미줄은 거미의 실샘안의 액체가 산소와 결합해 생성되는데 미국에서는 유전공학을 이용, 액체는 대량 생산할 수 있으나 아직 거미줄 대량 생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거미줄 대량 생산으로 첨단 소재가 개

발될 것입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거미전사로 만든 방탄조끼가 최고가로 매매되며 또 미국 방부가 거미줄을 이용, 방탄복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듀폰사에 용역을 줘 개발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무당거미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했고 그 결과 거미줄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이며 그 강도는 누에생사보다 10배이상 강하고 같은 굵기의 철사보다도 강하다는 결론을 얻은 상태이다. 金동문은 다른 거미줄에도 이같은 조사를 계속해 가장 양질의 거미줄을 선택해 공업화할 계획이다.

### 학원운영에 연구비 충당

『세계적으로 거미는 4만종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현재 한국거미는 45개과 2백13속 6백여종이 규명돼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거미만큼 체계가 잡혀 연구되고 있는 동물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곤충은 전체 동

물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제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동물의 70% 이상인 곤충류에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미나 지렁이처럼 징그럽고 거부감을 주기는 마찬가지지만 金동문은 거미를 징그럽다고 발로 밟기 앞서 그것에서 유익을 찾으려 애썼다. 다른 곤충에서도 얼마든지 거미이상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金동문은 국가에서 또는 다른 학자들이 애정있는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자로서 교역량 10위권에 있는 나라에서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돈만으로 인재를 살 수는 없지만 유능한 인재를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국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분야를 열심히 해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金동문은 대학시절부터 생활이 어려워 학원 강사를 했다. 지금은 왕십리에 있는 대영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원에서 남는 이익을 거미연구에 투입하고 있다.

우주선이 화성까지 날아가고 컴퓨터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현대에 곤충 그중에서도 거미는 아주 사소하고 가치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할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金동문에게는 조지워싱턴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막내딸 希眞양과 많은 제자들이 뒤를 잇고 있는 것이 30년 거미연구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元)

문화  
단신

## 新刊

### ■관계중심 교육 —李熾善 著



수원중 양기독학원 상임이사인 李熾善(55년 師大卒) 동문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현혹돼 멸망의 수렁으로 기울어 가는 한국 교육의 살길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

李동문은 이 책에서 현대 교육이 되찾아야 할 기독교 교육의 기본 이념과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 기독교 교육자의 자질을 제시하고 있다. (나침반刊·값 7,000원)

### ■파문

—吳鍾權 著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인 吳鍾權(69년 法大卒) 동문이 법과 사랑, 종교적 갈등을 담은 장편소설을 펴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를 앞세우면서 출세와 명예를 꿈꾸는 검사들의 이중적인 내면세계를 그려냄으로써 법조인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독자의 몫으로 남기고 있다. (중명刊·값 6,000원)

### ■콜린 파월 자서전

—柳津譯



뉴욕 할렘 출신의 흑인으로서는 미국 합참의장까지 올라간 대단한 존경을 받았던 콜린 파월 장군의 자서전을 柳津(83년 人文大卒·주) 풍산 대표 동문이 번역해 놓았다.

유년에서 청년시절까지, 군생활, 워싱턴시절, 합참의장시절 등의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95년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뉴욕타임스지가 선정하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샘터刊·값 15,000원)

## 公演

### ■김동수플루트독주회

—8월 19일 예술의 전당

파리 Romainville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수차례의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를 선보인 김동수(90년 音大卒·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동문이 플루트독주회를 갖는다.

## 展示

### ■黃仁惠개인전

—8월 21일 송아당 화랑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는 黃仁惠(69년 美大卒) 동문이 21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송아당화랑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정리=安興變기자)

## 동문기고

# 아들과 함께 가고픈 총동창회 등산대회

金英秀(74년 師大卒) 대영고교 교사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연대나 고대를 졸업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서울사대나 서울의대를 졸업했다고 말한다. 아예 「서울」을 떼 버리고 사대를 졸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악캠퍼스에서 한 해도 공부해 보지 못한 우리 70학번까지는 그랬다. 모임이라도 있어서 관악캠퍼스에 가 보면 그 큰 캠퍼스가 낯설게 여겨지기도 했었다.

### 내 아이가 동문되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게 하나의 꿈이 자리잡게 되었다. 내 아이가 자라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단과대학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창회 주최 관악산 가을 등반에 아들과 함께 참가하고 싶다는 꿈이었다. 졸업한지 20년이 넘도록 보내오는 동창회보가 있고 지내던 꿈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었다.

내가 서울대인임을 상기하게 되는 때는 그 외에도 있었다. 서울대 폐교론이 대두되면서였다. 내가 졸업한 사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운명이었고, 등록금을 적게 낸 것 외에는 서울대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늘 생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울대 출신임을 아는 나의 이웃이 내 앞에서 서울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할 때, 신기하게도 사대가 아닌 서울대에 대한 애정같은 것이 싹트고 자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초복인 오늘 다시 관악산의 가을을 생각나게 하는 두 가지 소식을 접한다. 하나는 「勉學」 앞에 여름 더위 없다」는 타이틀의 동창회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내 아이의 1학기말 성적이 학년 1등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산의 가을은 어찌하면 그저 실현될 수 없는 꿈일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온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학년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는 지방의 과학고이고 2학년 말이면 반 정도가 과기대로 진학해 버려, 30명 재적수로 1등을 하더라도 서울대 희망 학과에 진학할 수 없는 입시제도 때문이다. 정원이 600명 정도인 일반고등학교와 비교한다면 같은 1등이라도 14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또 1등이라 하더라도 전과목 1등은 되지 못할 것이므로 그 비율만큼의 성적 차이가 날 것이다. 한 등만 더 밀리면 28점의 차이가 나기에, 수능 가산점을 고려한다 해

도 수능 24점의 점수 차가 나기에, 현 제도로는 입학이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이 우리 동문 중에 또 있을 것이다. 내 아이의 학교에도 아빠가 서울대 출신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고민은 학부모인 동문들의 것만은 아니리라 생각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한다면, 물론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로 입학생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서울대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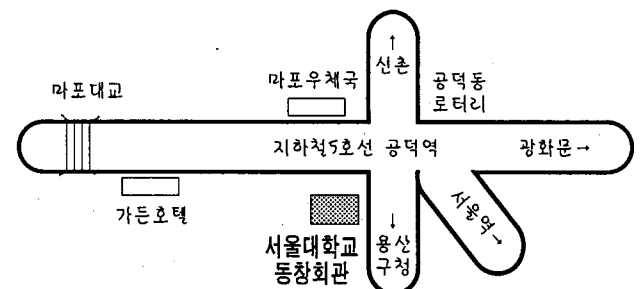
### 특수고 학생 선발해야

나는 모교의 발전을 원하고 아들을 모교에 진학시키고 싶어하는 동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만일 서울대가 여론이나 위상 때문에 입시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안타까워도 내 아이를 선택해 주고 그 재능을 인정해 주는 학교의 학부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자리하게 된 관악산 가을 등반에 대한 꿈도 뒤늦게 자라기 시작한 모교에의 애정과 더불어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 동창회관이용안내

##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동문여러분이 주최하시는 세미나, 출판기념회를 비롯하여 각종 연회 그리고 동문과 동문 직계가족의 결혼식등 모든 행사를 실비만으로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지하철 5호선 공덕역하차·6번 출구 이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전화: (02) 702-2233(대)  
※팩스: (02) 703-0755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 5월 26일 ~ 7월 19일 · 一般: 5월 10일 ~ 7월 18일〉

월계: 61,220,000원 누계: 361,268,536

## 회 장 단

- ▲부회장 姜信浩=1백만원
- ▲부회장 朴景容=1백만원
- ▲부회장 李相禹=50만원
- ▲부회장 洪斗杓=50만원
- ▲부회장 卞柱仙=1백만원
- ▲부회장 洪錫炫=1백만원

## 이 사

### ◇社會科學大學

- ▲이천복⑧보람은행과장

### ◇家政大學

- ▲우경자⑥인하대 교수
- ▲인영희⑥명일여중 교장
- ▲임정빈⑥한양대 학장
- ▲현은강⑥인하대 교수

### ◇看護大學

- ▲문이숙④前이대병원 실장
- ▲이정자⑨충무병원 실장

### ◇經營大學

- ▲권기출⑥제우기계 이사

### ◇工科大學

- ▲강병희⑥인하대 교수
- ▲강신규⑥현대녹음 사장
- ▲고명삼⑥서울대 명예교수
- ▲고재웅⑥건국대 대학원장
- ▲권봉수⑥LG실트론 상무
- ▲권영선⑥유성상사 대표
- ▲김경렬⑥송실대 교수
- ▲김보웅⑥쌍용양회공업전무
- ▲김연식⑥유공 부사장
- ▲김영남⑥대우전자 사장
- ▲김인기⑥우보ENG 회장
- ▲김정수⑦현대정공전무이사
- ▲김종석⑥선아가스상사사장
- ▲김종해⑥한국크리버 대표
- ▲김춘식⑥前대구화평메디칼
- ▲김충기⑦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태준⑥히림종합건축대표
- ▲김형주⑥삼안건설기술회장
- ▲남경희⑥울산화학대표이사
- ▲박덕상⑥선진ENG 부회장
- ▲박영희⑥前우주개발 대표
- ▲박종률⑥유공가스대표이사
- ▲배상호⑥쌍용정유 부사장
- ▲서재영⑦서방실업 사장
- ▲성백전⑥해외기술공사대표
- ▲성연찬⑥일진기업대표이사

- ▲성응모⑥ENG서비스 사장
- ▲송재근⑥대진전기판매대표
- ▲송종석⑥현대건축계획원
- ▲송진환⑥동남석유공업고문
- ▲송철조⑥한류ENG 대표
- ▲신현우⑦옥시 대표이사
- ▲심주섭⑥로움코리아사장
- ▲심해경⑥화인주택대표이사
- ▲안상영⑥부산매일신문사장
- ▲오계환⑥현대전자 부사장
- ▲오세철⑥서울ENG 대표
- ▲오화석⑥前철도전문대학장
- ▲유병권⑥대우전자부품상무
- ▲유상희⑥대한광업진흥공사
- ▲유현식⑥삼성종합화학대표
- ▲윤석구⑦해외석유개발협회
- ▲이광우⑥롯데햄·우유 상무
- ▲이덕선⑥前EXPO조직위
- ▲이병휘⑥KAIST 명예교수
- ▲이윤식⑥시설안전기술공단
- ▲이정환⑥서울대 명예교수
- ▲이창갑⑥전양대학교 총장
- ▲이태섭⑥국회의원
- ▲이택우⑥진양공업 사장
- ▲전대원⑥(주)삼창 고문
- ▲정동진⑦대림산업 전무
- ▲정병숙⑥생산기술원 대표
- ▲최동재⑥前동일제강 전무
- ▲최용덕⑥건설진흥회 위원
- ▲최원갑⑥최신물산 회장
- ▲한형수⑥제일합섬 부회장

### ◇農科大學

- ▲고재근⑥서울대 명예교수
- ▲박지상⑦수안보은천장호텔
- ▲김경옥⑦서울대 교수
- ▲김영섭⑥삼덕비즈 대표
- ▲김현구⑥前청주교대 학장
- ▲박영기⑦현대자동차 상무
- ▲송재관⑥박애병원 이사장
- ▲원창남⑥한국삼공 부사장
- ▲유동준⑥한국단미사료협회
- ▲이재현⑥용인정신병원고문
- ▲최찬식⑥국토정책연구소장
- ▲허종관⑥한국경제종합원
- ▲홍순홍⑥영진헬스 관장

### ◇文理科大學

- ▲고영재⑦한겨레21편집장
- ▲김복문⑤오사카대학 교수
- ▲김상호⑥형제사 대표이사
- ▲김영배⑥중앙일보 국장
- ▲김원호⑦유미특허법률소장
- ▲김재룡⑥한화증권 부사장
- ▲김정남⑥前사회복지수석

- ▲김종구⑥한국건설기술원
- ▲김종하⑥국회의원
- ▲나병욱⑥경북대 명예교수
- ▲박동수⑥경북대 명예교수
- ▲박상태⑥서강대 교수
- ▲박지용⑥前신문고교 교사
- ▲박한상⑥변호사
- ▲배규한⑦국민대 학생처장
- ▲송희성⑥서울대 교수
- ▲신우식⑦영상자료원 이사장
- ▲신지현⑦인천교대 교수
- ▲오혁주⑥한국조세신문회장
- ▲은무일⑥전북대 교수
- ▲이동복⑦국회의원
- ▲이상원⑦계미칼銀부지점장
- ▲정소성⑥단국대 교수
- ▲조동현⑥前유성건설 고문
- ▲조영주⑦선경PLAZA전무
- ▲한우석⑥前외교안보연구원

### ◇美術大學

- ▲강은영⑥계원조형예대 교수
- ▲백현옥⑥인하대 교수
- ▲조승환⑥동국대 교수

### ◇法科大學

- ▲강구현⑦현대건설 부장
- ▲강인현⑥한양증권상임고문
- ▲강재모⑥동남은행 이사
- ▲강태중⑥위너스버거 사장
- ▲강홍구⑥변호사
- ▲경종철⑥과학기술처 실장
- ▲곽종훈⑦서울고법 판사
- ▲구운회⑥세무사
- ▲권지용⑥지림출판사 사장
- ▲김기택⑦신일상역대표이사
- ▲김대환⑥서울고법부장판사
- ▲김봉환⑥변호사
- ▲김시승⑥부산지법 지원장
- ▲김영일⑥국회의원
- ▲김영채⑥변호사
- ▲김종대⑦부산지법부장판사
- ▲김태무⑥한통 서울본부장
- ▲김현산⑥중앙노동조합 위원
- ▲노창호⑥대한지적공사
- ▲박병민⑦광주은행 이사
- ▲박용도⑥前무역진흥공사장
- ▲박일홍⑥변호사
- ▲박종국⑥동양투금 전무
- ▲박종성⑦의정부지원 판사
- ▲박학수⑥법무사
- ▲박해성⑦수원지법부장판사
- ▲배경숙⑥인하대 명예교수
- ▲배명인⑥변호사
- ▲백영엽⑦사법연수원

- ▲백운수⑥서울대 강사
- ▲변충근⑥사회복지법인
- ▲상세환⑥(주)서흥 부회장
- ▲서 민⑥충남대 교수
- ▲서 성⑥대법원행정처차장
- ▲서정욱⑥철강협회 부회장
- ▲석광현⑦변호사
- ▲선우종원⑥변호사
- ▲손병기⑥목원대 교수
- ▲손제희⑥변호사
- ▲손종석⑥前도시철도공사장
- ▲송진현⑦서울지법부장판사
- ▲신현덕⑥경희대 교수
- ▲심우영⑥청와대 행정수석
- ▲양승상⑥대한교원공제회
- ▲양인석⑥제일은행 실장
- ▲오재선⑥국립세무대 교수
- ▲오종권⑥변호사
- ▲유해덕⑦수원대 교수
- ▲윤 탁⑥YUROS무역상사
- ▲윤재기⑥변호사
- ▲이귀호⑥코리아제록스대표
- ▲이무룡⑥근화제약 사장
- ▲이병춘⑥광주방송 대표
- ▲이수모⑥배영의숙학원회장
- ▲이수영⑦내무부 세제국장
- ▲이순중⑥한화 대표이사
- ▲이용희⑥한국상업은행상무
- ▲이윤승⑦의정부지원 판사
- ▲이재웅⑥고려종합경제원
- ▲이정무⑥국회의원
- ▲이정환⑥한일은행 지점장
- ▲이종용⑥한라해운 부회장
- ▲이종일⑥한국법제연구원
- ▲이현재⑥변호사
- ▲장 호⑦변호사
- ▲장상재⑥경찰청 위원장
- ▲장주일⑥오성인터내셔널
- ▲전덕원⑥기술신용보증기금
- ▲전봉호⑦변호사
- ▲정명래⑥변호사
- ▲정석모⑥국회의원
- ▲정운직⑦팜택 대표이사
- ▲정한상⑥부산일보상임고문
- ▲정해창⑥변호사
- ▲조동주⑦신한기획대표이사
- ▲조성일⑥협신상호신용금고
- ▲조왕제⑥인천투금대표이사
- ▲조용근⑥한성생명보험고문
- ▲조주순⑥타이가상사 전무
- ▲조찬형⑥국회의원
- ▲지근수⑥한마산업 사장
- ▲채태병⑦민사지법 판사
- ▲최상룡⑥법양식품 전무
- ▲최상태⑥한국일보광고본부

- ▲한봉수⑥前상공부장관
- ▲한영광⑦대주건설 부사장
- ▲한주상⑦대경특수강 전무
- ▲한후진⑥오션퍼시픽마케팅
- ▲허 군⑥제우공제회 대표
- ▲현종찬⑦변호사
- ▲홍재현⑥현대정보통신
- ▲황보경석⑥前동진산업 사장
- ▲황수길⑦해운대세무서장
- ▲황이연⑥한국보훈복지공단
- ▲황종태⑥변호사
- ▲황주명⑥변호사

### ◇師範大學

- ▲김낙승⑥前청운중 교장
- ▲나도승⑥금강권연구소소장
- ▲노갑기⑦명은상사대표이사
- ▲노재민⑥신일축산대표이사
- ▲송만호⑥용산관광터미널
- ▲신란식⑥순천대사범대학장
- ▲신용일⑦인하대 교수
- ▲심진호⑦경신물산 사장
- ▲유병립⑥서울교대명예교수
- ▲윤덕중⑥경남대 도서관장
- ▲윤봉련④홍지유치원 원장
- ▲이석조⑥금호레미콘 대표
- ▲이형연⑦고려중학교 교장
- ▲이해성⑥이화여대 교수
- ▲임덕순⑥충북대 교수
- ▲전종철⑥전청풍인쇄 회장
- ▲정민영⑦前홍대부속여중장
- ▲정문성⑦울산대 교수
- ▲한도연⑥산정청소년훈련원
- ▲허판예⑥공지중학교 교장
- ▲호문룡⑥수원대 교수

### ◇商科大學

- ▲강경만⑥제일물산 사장
- ▲강신돈⑦국민대 교수
- ▲공정근⑥前효성물산부회장
- ▲김명호⑦한국은행 고문
- ▲김연배⑥한화그룹 전무
- ▲김웅태⑦신영증권 이사
- ▲김종원⑥진유산업 대표
- ▲김진주⑥포철 부사장
- ▲나길웅⑥한국은행 국장
- ▲노광표⑦前담배인삼공사
- ▲박문달⑥LG유통 전무
- ▲박영구⑦삼성정밀화학대표
- ▲박청부⑥증권감독원 원장
- ▲배주원⑥아신해운대표이사
- ▲배홍규⑦공인회계사
- ▲송병락⑦서울대 교수
- ▲송일범⑥호흥증권 상무
- ▲신세길⑥삼성물산주주본사

▲오규환<sup>67</sup>삼덕물산대표이사  
▲유충식<sup>61</sup>동아제약대표이사  
▲윤은용<sup>63</sup>양진양행 사장  
▲윤익수<sup>60</sup>두양그룹 부회장  
▲이 연<sup>63</sup>삼성석유화학고문  
▲이만식<sup>67</sup>중부리스대표이사  
▲이승섭<sup>67</sup>회계사  
▲이춘무<sup>64</sup>고제대표이사회장  
▲이택섭<sup>55</sup>우빈산업대표이사  
▲임동승<sup>62</sup>삼성증권상임역  
▲정준철<sup>64</sup>농협구과발지점장  
▲주진표<sup>61</sup>천원수산대표이사  
▲지치본<sup>62</sup>나산기획조정실장  
▲최 돈<sup>67</sup>우림인택대표이사  
▲표계영<sup>63</sup>한일은행 상무  
▲한국증<sup>67</sup>한전 외자처장  
▲한상현<sup>45</sup>세방여행사 고문  
▲홍승희<sup>41</sup>성곡학술문화재단

#### ◇獸醫科大學

▲김윤찬<sup>71</sup>코리아메디아대표  
▲김진구<sup>67</sup>성일약품 사장  
▲나기식<sup>68</sup>동선산업 대표  
▲안석길<sup>55</sup>순흥동물병원장  
▲장천석<sup>57</sup>중앙물산상사대표  
▲정대연<sup>59</sup>춘성가축병원장

#### ◇藥學大學

▲강석진<sup>59</sup>동덕약국약사  
▲곽효성<sup>67</sup>종근당 이사  
▲김국립<sup>66</sup>환인제약 부사장  
▲김수경<sup>61</sup>동진약국 약사  
▲김장숙<sup>58</sup>前정무제2장관  
▲김종국<sup>66</sup>서울대 교수  
▲김홍집<sup>64</sup>대생약국 약사  
▲민주홍<sup>56</sup>대성기업 사장  
▲서한익<sup>66</sup>초당약품 전무  
▲우재성<sup>75</sup>검단약국 약사  
▲윤광철<sup>61</sup>윤약국 약사  
▲이상섭<sup>54</sup>前서울대 교수  
▲이필량<sup>67</sup>홍익제약대표이사  
▲전용동<sup>47</sup>유중당약국약사  
▲최윤환<sup>60</sup>진양제약대표이사  
▲한규홍<sup>68</sup>동아제약개발상무  
▲홍순억<sup>58</sup>유한화학대표이사

#### ◇音樂大學

▲김명희<sup>55</sup>한국성악회 이사  
▲김홍련<sup>56</sup>아세아방송 이사  
▲서경선<sup>64</sup>한양대 교수  
▲양은희<sup>75</sup>상명대 교수  
▲이경숙<sup>55</sup>前서울대 교수  
▲이성천<sup>56</sup>서울대 교수

#### ◇醫科大學

▲강세운<sup>65</sup>강남성모병원  
▲강세철<sup>58</sup>강세철의원장  
▲강신일<sup>64</sup>내과의원장  
▲강윤식<sup>79</sup>서울의과클리닉  
▲고원순<sup>74</sup>정형외과의원장  
▲권이혁<sup>47</sup>녹십자 명예회장  
▲기의식<sup>48</sup>기의원 원장  
▲김 윤<sup>68</sup>충남대병원병원장  
▲김시환<sup>59</sup>서울대 교수  
▲김원희<sup>60</sup>부산의대 교수  
▲김형목<sup>63</sup>고려대 교수  
▲맹국영<sup>74</sup>경상대의대 교수  
▲문한규<sup>57</sup>동의의료원  
▲박노정<sup>66</sup>서울을지병원부장  
▲박대관<sup>51</sup>박의과의원장  
▲박상철<sup>73</sup>서울대 교수  
▲박한철<sup>59</sup>한양의대 교수

▲박호진<sup>78</sup>서울적십자병원  
▲방성호<sup>72</sup>동인의원 원장  
▲선호영<sup>48</sup>선병원 이사장  
▲신성우<sup>53</sup>신소아과의원장  
▲신순현<sup>68</sup>중앙대 의료원장  
▲엄영섭<sup>48</sup>엄소아과의원장  
▲우원형<sup>56</sup>우산부인과 원장  
▲원장섭<sup>74</sup>동래병원진료부장  
▲윤준식<sup>50</sup>복지병원 원장  
▲이경지<sup>53</sup>성일산부인과원장  
▲이명근<sup>74</sup>산부인과의원장  
▲이명욱<sup>71</sup>해화진단방사선과  
▲이민호<sup>73</sup>한양대 교수  
▲이병화<sup>62</sup>인천의료원 원장  
▲이순형<sup>62</sup>서울대 의대학장  
▲이종찬<sup>53</sup>외과의원장  
▲이한구<sup>54</sup>前서울대 교수  
▲정규병<sup>71</sup>고려대 교수  
▲정영덕<sup>76</sup>성형외과의원장  
▲조경환<sup>58</sup>조경환의원 원장  
▲주근원<sup>43</sup>동부화재보험고문  
▲최동수<sup>60</sup>최내과의원 원장  
▲최재득<sup>63</sup>내과의원장  
▲최훈동<sup>79</sup>백산신경정신과  
▲홍창의<sup>47</sup>중앙병원 소아과

#### ◇齒科大學

▲강성현<sup>75</sup>강성현치과의원장  
▲강영만<sup>81</sup>은성치과의원장  
▲강우곤<sup>70</sup>강우곤치과의원장  
▲김계종<sup>66</sup>김계종치과의원장  
▲김기호<sup>61</sup>김기호치과의원장  
▲김봉환<sup>62</sup>김봉환치과의원장  
▲김상숙<sup>77</sup>김치과의원장  
▲김원규<sup>60</sup>김원규치과의원장  
▲박유년<sup>74</sup>박치과의원장  
▲박필규<sup>74</sup>박필규치과의원장  
▲손광웅<sup>66</sup>성모치과의원장  
▲신정훈<sup>71</sup>중앙치과의원장  
▲유형식<sup>65</sup>유치과의원장  
▲이범권<sup>61</sup>이범권치과의원장  
▲이병태<sup>67</sup>이병태치과의원장  
▲이승우<sup>61</sup>서울대 교수  
▲이용오<sup>68</sup>이용오치과의원장  
▲이준기<sup>59</sup>이치과의원장  
▲장홍수<sup>57</sup>장홍수치과의원장  
▲정해구<sup>62</sup>정해구치과의원장  
▲조택순<sup>73</sup>조도치과의원장  
▲최순덕<sup>50</sup>동화치과의원장  
▲허택<sup>77</sup>평화치과의원장

#### ◇大學院

▲구창희<sup>67</sup>부광약품공업상무  
▲김완태<sup>72</sup>성지의원 원장  
▲송기언<sup>75</sup>잠사곤충연구관  
▲유홍희<sup>62</sup>한양대 교수

#### ◇經營大學院

▲김광득<sup>70</sup>해운항만청 차장  
▲김두찬<sup>67</sup>울곡문화원 원장

#### ◇保健大學院

▲강신효<sup>70</sup>동홍한의원 원장  
▲김송전<sup>72</sup>명지대 교수  
▲박희서<sup>79</sup>박희서한의원장  
▲이선자<sup>67</sup>서울대 교수  
▲장주호<sup>67</sup>명진의원 원장  
▲한홍율<sup>69</sup>서울대 교수

#### ◇司法大學院

▲설경진<sup>69</sup>변호사

#### ◇新聞大學院

▲안성균<sup>73</sup>중소기업청 위원  
▲이준우<sup>75</sup>조선일보편집국장

#### ◇行政大學院

▲김진억<sup>66</sup>前국민리쓰부사장  
▲손선규<sup>64</sup>한국신문인크사장  
▲어창수<sup>64</sup>대림공업 고문  
▲유형식<sup>69</sup>오성수출 회장  
▲이치업<sup>61</sup>BETZ화학고문  
▲장승태<sup>61</sup>前진로그룹 고문  
▲정상천<sup>64</sup>국회의원

#### ◇環境大學院

▲권 완<sup>78</sup>(주)건영 부사장  
▲박형석<sup>74</sup>우보ENG 부회장  
▲윤화일<sup>61</sup>한국주택銀 부장

### 일 반

#### ◇人文大學

▲국은주<sup>67</sup> ▲김성호<sup>78</sup>  
▲김학래<sup>78</sup> ▲박영열<sup>78</sup>  
▲박현철<sup>66</sup> ▲박혜경<sup>68</sup>  
▲석종욱<sup>77</sup> ▲심양섭<sup>67</sup>  
▲오춘호<sup>66</sup> ▲이동영<sup>67</sup>  
▲이왕돈<sup>79</sup> ▲이종현<sup>95</sup>  
▲전경재<sup>65</sup> ▲최규식<sup>77</sup>

#### ◇社會科學大學

▲강순구<sup>76</sup> ▲구본성<sup>89</sup>  
▲권 일<sup>83</sup> ▲김용창<sup>86</sup>  
▲김정영<sup>92</sup> ▲김정훈<sup>93</sup>  
▲김태범<sup>81</sup> ▲김택환<sup>91</sup>  
▲김환준<sup>88</sup> ▲박건중<sup>93</sup>  
▲박유경<sup>95</sup> ▲박종환<sup>91</sup>  
▲송상민<sup>89</sup> ▲신 진<sup>83</sup>  
▲오철수<sup>87</sup> ▲이런주<sup>88</sup>  
▲이성주<sup>87</sup> ▲이은우<sup>89</sup>  
▲전홍찬<sup>83</sup> ▲정 현<sup>91</sup>  
▲최광해<sup>78</sup> ▲최원식<sup>87</sup>  
▲한창호<sup>89</sup> ▲황승환<sup>88</sup>

#### ◇自然科學大學

▲권재명<sup>94</sup> ▲김건우<sup>89</sup>  
▲김상길<sup>89</sup> ▲김재우<sup>76</sup>  
▲김재찬<sup>92</sup> ▲민경석<sup>88</sup>  
▲박화섭<sup>77</sup> ▲백화진<sup>94</sup>  
▲송준화<sup>88</sup> ▲양병룡<sup>78</sup>  
▲양원호<sup>89</sup> ▲윤영귀<sup>93</sup>  
▲이상구<sup>85</sup> ▲이용재<sup>78</sup>  
▲이제중<sup>92</sup> ▲이종민<sup>88</sup>  
▲이현주<sup>89</sup> ▲이호규<sup>93</sup>  
▲임태순<sup>84</sup> ▲장영록<sup>86</sup>  
▲장태식<sup>80</sup> ▲전세화<sup>89</sup>  
▲정광철<sup>88</sup> ▲조문성<sup>89</sup>  
▲조원덕<sup>79</sup> ▲채종근<sup>96</sup>  
▲최달영<sup>83</sup> ▲최종선<sup>88</sup>  
▲최중수<sup>89</sup> ▲최형규<sup>88</sup>  
▲하상용<sup>90</sup> ▲한동욱<sup>94</sup>  
▲황찬용<sup>85</sup>

#### ◇家政大學

▲강영자<sup>65</sup> ▲경희호<sup>64</sup>  
▲고영자<sup>64</sup> ▲김순동<sup>56</sup>  
▲박영애<sup>73</sup> ▲박태은<sup>71</sup>  
▲방남순<sup>74</sup> ▲배자옥<sup>94</sup>  
▲유재은<sup>86</sup> ▲유효선<sup>74</sup>  
▲이영주<sup>60</sup> ▲정현수<sup>75</sup>

▲최연주<sup>92</sup>  
▲황재호<sup>96</sup>

#### ◇看護大學

▲강채원<sup>73</sup> ▲김명숙<sup>65</sup>  
▲김을자<sup>68</sup> ▲이금라<sup>74</sup>  
▲이선옥<sup>73</sup> ▲이은주<sup>94</sup>  
▲정숙영<sup>59</sup> ▲한혜숙<sup>71</sup>  
▲황금미<sup>76</sup>

#### ◇經營大學

▲강종선<sup>85</sup> ▲고대원<sup>88</sup>  
▲권태근<sup>82</sup> ▲김상범<sup>82</sup>  
▲김영규<sup>94</sup> ▲김영봉<sup>88</sup>  
▲김형동<sup>90</sup> ▲우정엽<sup>95</sup>  
▲윤영대<sup>88</sup> ▲윤재화<sup>95</sup>  
▲최 수<sup>78</sup> ▲최재후<sup>80</sup>  
▲최창목<sup>86</sup> ▲황동철<sup>79</sup>

#### ◇工科大學

▲강경찬<sup>75</sup> ▲강경호<sup>83</sup>  
▲강동균<sup>84</sup> ▲강승혁<sup>89</sup>  
▲강인엽<sup>85</sup> ▲고일룡<sup>87</sup>  
▲곽병현<sup>71</sup> ▲곽신웅<sup>87</sup>  
▲권수원<sup>71</sup> ▲권순식<sup>66</sup>  
▲권영두<sup>74</sup> ▲권익현<sup>73</sup>  
▲권일건<sup>82</sup> ▲기원강<sup>75</sup>  
▲김 룬<sup>56</sup> ▲김 회<sup>70</sup>  
▲김건일<sup>65</sup> ▲김경화<sup>69</sup>  
▲김광섭<sup>75</sup> ▲김기범<sup>93</sup>  
▲김기봉<sup>78</sup> ▲김덕규<sup>93</sup>  
▲김덕초<sup>64</sup> ▲김동기<sup>81</sup>  
▲김동길<sup>69</sup> ▲김동상<sup>59</sup>  
▲김동수<sup>82</sup> ▲김동훈<sup>50</sup>  
▲김명석<sup>63</sup> ▲김명수<sup>80</sup>  
▲김문기<sup>61</sup> ▲김백영<sup>70</sup>  
▲김병열<sup>79</sup> ▲김병철<sup>61</sup>  
▲김상갑<sup>65</sup> ▲김석근<sup>57</sup>  
▲김성기<sup>84</sup> ▲김성배<sup>72</sup>  
▲김성보<sup>88</sup> ▲김성우<sup>84</sup>  
▲김수남<sup>58</sup> ▲김신우<sup>81</sup>  
▲김안구<sup>73</sup> ▲김안순<sup>58</sup>  
▲김억조<sup>74</sup> ▲김영남<sup>70</sup>  
▲김영문<sup>64</sup> ▲김영일<sup>80</sup>  
▲김완수<sup>49</sup> ▲김용태<sup>57</sup>  
▲김원만<sup>53</sup> ▲김응건<sup>89</sup>  
▲김익훈<sup>53</sup> ▲김인수<sup>79</sup>  
▲김임수<sup>67</sup> ▲김정기<sup>68</sup>  
▲김정락<sup>71</sup> ▲김종국<sup>65</sup>  
▲김종현<sup>76</sup> ▲김준모<sup>89</sup>  
▲김진경<sup>75</sup> ▲김충진<sup>50</sup>  
▲김태종<sup>80</sup> ▲김학철<sup>74</sup>  
▲김한석<sup>82</sup> ▲김해전<sup>56</sup>  
▲김혜진<sup>58</sup> ▲김호영<sup>96</sup>  
▲김홍용<sup>79</sup> ▲김취중<sup>71</sup>  
▲김홍수<sup>67</sup> ▲남기태<sup>95</sup>  
▲남시도<sup>63</sup> ▲남장수<sup>68</sup>  
▲동종인<sup>79</sup> ▲류춘희<sup>68</sup>  
▲마석일<sup>61</sup> ▲문규철<sup>73</sup>  
▲문승현<sup>79</sup> ▲문종우<sup>90</sup>  
▲민병승<sup>64</sup> ▲민수홍<sup>51</sup>  
▲민영훈<sup>87</sup> ▲민재호<sup>58</sup>  
▲민화식<sup>75</sup> ▲박 강<sup>86</sup>  
▲박 철<sup>64</sup> ▲박기웅<sup>66</sup>  
▲박동원<sup>62</sup> ▲박무근<sup>64</sup>  
▲박병균<sup>92</sup> ▲박상덕<sup>76</sup>  
▲박상윤<sup>77</sup> ▲박상진<sup>82</sup>  
▲박성대<sup>93</sup> ▲박인섭<sup>77</sup>  
▲박재범<sup>92</sup> ▲박재서<sup>72</sup>  
▲박정우<sup>81</sup> ▲박종철<sup>50</sup>  
▲박진석<sup>85</sup> ▲박찬정<sup>77</sup>

▲박태권<sup>59</sup> ▲박태성<sup>80</sup>  
▲박현승<sup>77</sup> ▲박형규<sup>79</sup>  
▲박환수<sup>61</sup> ▲배봉휘<sup>67</sup>  
▲백남기<sup>53</sup> ▲백봉근<sup>54</sup>  
▲백영현<sup>71</sup> ▲변영진<sup>70</sup>  
▲변응현<sup>70</sup> ▲서영태<sup>71</sup>  
▲서정선<sup>81</sup> ▲서정우<sup>92</sup>  
▲서진구<sup>77</sup> ▲손 훈<sup>92</sup>  
▲송기석<sup>62</sup> ▲신근식<sup>70</sup>  
▲신상준<sup>89</sup> ▲신재홍<sup>81</sup>  
▲신충선<sup>89</sup> ▲신형균<sup>90</sup>  
▲심교언<sup>93</sup> ▲심오섭<sup>81</sup>  
▲안두식<sup>60</sup> ▲안상희<sup>72</sup>  
▲안중철<sup>70</sup> ▲양우영<sup>89</sup>  
▲양종식<sup>72</sup> ▲염재성<sup>77</sup>  
▲염태우<sup>67</sup> ▲여인철<sup>79</sup>  
▲오명환<sup>65</sup> ▲오세원<sup>90</sup>  
▲오정환<sup>70</sup> ▲원성필<sup>79</sup>  
▲원종욱<sup>73</sup> ▲원형재<sup>75</sup>  
▲유근택<sup>75</sup> ▲유남열<sup>95</sup>  
▲유석종<sup>74</sup> ▲유용하<sup>66</sup>  
▲유중호<sup>57</sup> ▲유희진<sup>82</sup>  
▲유희갑<sup>79</sup> ▲윤금중<sup>81</sup>  
▲윤대균<sup>83</sup> ▲윤상철<sup>55</sup>  
▲윤영식<sup>73</sup> ▲윤용균<sup>65</sup>  
▲윤정목<sup>67</sup> ▲윤추성<sup>65</sup>  
▲은근수<sup>65</sup> ▲이 민<sup>64</sup>  
▲이건채<sup>65</sup> ▲이관후<sup>91</sup>  
▲이규생<sup>61</sup> ▲이기설<sup>51</sup>  
▲이기완<sup>87</sup> ▲이길형<sup>76</sup>  
▲이남구<sup>75</sup> ▲이대근<sup>94</sup>  
▲이덕열<sup>81</sup> ▲이명호<sup>96</sup>  
▲이봉주<sup>71</sup> ▲이상돈<sup>88</sup>  
▲이상록<sup>76</sup> ▲이상범<sup>55</sup>  
▲이상원<sup>69</sup> ▲이상호<sup>56</sup>  
▲이상화<sup>94</sup> ▲이선규<sup>60</sup>  
▲이성웅<sup>63</sup> ▲이성태<sup>75</sup>  
▲이수곤<sup>64</sup> ▲이순병<sup>72</sup>  
▲이승무<sup>65</sup> ▲이승욱<sup>62</sup>  
▲이승욱<sup>95</sup> ▲이영길<sup>63</sup>  
▲이영주<sup>93</sup> ▲이영택<sup>64</sup>  
▲이예민<sup>50</sup> ▲이용우<sup>81</sup>  
▲이용재<sup>79</sup> ▲이용준<sup>87</sup>  
▲이원배<sup>55</sup> ▲이윤후<sup>58</sup>  
▲이은철<sup>69</sup> ▲이의남<sup>69</sup>  
▲이익효<sup>65</sup> ▲이재욱<sup>65</sup>  
▲이재일<sup>80</sup> ▲이정하<sup>73</sup>  
▲이정훈<sup>94</sup> ▲이종열<sup>50</sup>  
▲이종원<sup>70</sup> ▲이준환<sup>66</sup>  
▲이중호<sup>62</sup> ▲이철신<sup>87</sup>  
▲이청원<sup>67</sup> ▲이충길<sup>68</sup>  
▲이태동<sup>68</sup> ▲이현우<sup>58</sup>  
▲이흥근<sup>69</sup> ▲이희석<sup>93</sup>  
▲임문규<sup>72</sup> ▲임미나<sup>90</sup>  
▲임성빈<sup>68</sup> ▲장경현<sup>84</sup>  
▲장동우<sup>95</sup> ▲장원갑<sup>67</sup>  
▲장응재<sup>68</sup> ▲장일환<sup>95</sup>  
▲장재익<sup>88</sup> ▲장필승<sup>96</sup>  
▲전 윤<sup>64</sup> ▲전봉수<sup>68</sup>  
▲정 홍<sup>77</sup> ▲정강환<sup>68</sup>  
▲정광석<sup>75</sup> ▲정구필<sup>69</sup>  
▲정금배<sup>90</sup> ▲정봉수<sup>63</sup>  
▲정수민<sup>74</sup> ▲정신순<sup>63</sup>  
▲정윤진<sup>77</sup> ▲정인식<sup>78</sup>  
▲정종구<sup>72</sup> ▲정종모<sup>86</sup>  
▲정진경<sup>52</sup> ▲정진오<sup>94</sup>  
▲정휘원<sup>55</sup> ▲조규진<sup>82</sup>  
▲조영주<sup>78</sup> ▲조정구<sup>87</sup>  
▲조정수<sup>61</sup> ▲조정현<sup>94</sup>  
▲주광윤<sup>69</sup> ▲주길돈<sup>68</sup>  
▲주수일<sup>65</sup> ▲지태용<sup>55</sup>  
▲차건동<sup>74</sup> ▲천남중<sup>69</sup>

▲천진희93  
▲최선용57  
▲최성일66  
▲최영남57  
▲최원규92  
▲최인섭65  
▲최장원95  
▲최종근99  
▲최현곤99  
▲한동철69  
▲한용33  
▲허진80  
▲홍우기54  
▲황성수96

◇農科大學

▲고홍석76  
▲김규식75  
▲김동익56  
▲김상혁70  
▲김영옥59  
▲김일종73  
▲김정목65  
▲김태갑78  
▲문대천64  
▲박성희68  
▲박승무59  
▲박재현87  
▲박천식69  
▲백운하37  
▲성용훈56  
▲송동훈65  
▲신용익77  
▲안상남65  
▲오근배60  
▲유부렬74  
▲유형우74  
▲윤영일66  
▲이경국92  
▲이광선63  
▲이덕남74  
▲이민호60  
▲이상범92  
▲이석기67  
▲이종호56  
▲이창복43  
▲이현범61  
▲이희석61  
▲임정목74  
▲장정수71  
▲전용식65  
▲정민환70  
▲정휘영73  
▲조규열56  
▲조병춘63  
▲조종수70  
▲조철희77  
▲최동룡74  
▲최용근92  
▲허유만71  
▲현학범61  
▲홍동의89

◇文理科大學

▲강기진70  
▲고광용64  
▲고중언64  
▲구춘회50  
▲권영조65  
▲권종락72  
▲김경두75  
▲김기근73

▲최석영91  
▲최성식89  
▲최승철70  
▲최웅렬64  
▲최원준95  
▲최인영65  
▲최재병56  
▲최태희89  
▲하성용86  
▲한수양71  
▲한종희94  
▲현정훈80  
▲황규원71  
▲황우형67

▲김광호92  
▲김근영69  
▲김두식59  
▲김세렬61  
▲김운태60  
▲김재권52  
▲김종암74  
▲등석85  
▲박선영66  
▲박수찬88  
▲박재현53  
▲박종갑87  
▲방석남78  
▲서정연89  
▲송기면80  
▲송삼석57  
▲심성섭58  
▲양병이69  
▲오현우86  
▲유인천57  
▲유희기49  
▲이강세62  
▲이경원65  
▲이기복57  
▲이문용77  
▲이병천59  
▲이상직53  
▲이신기64  
▲이종화40  
▲이창호59  
▲임상녕69  
▲장낙연59  
▲장형준89  
▲정경진61  
▲정진석66  
▲조풍65  
▲조동욱92  
▲조성호82  
▲조준기58  
▲천정하58  
▲최상윤78  
▲하현철88  
▲현승길69  
▲현호연57

▲김남현70  
▲김동욱58  
▲김명자66  
▲김명희73  
▲김생기65  
▲김선엽55  
▲김영구66  
▲김영수63  
▲김영일64  
▲김용표72  
▲김은호57  
▲김인철66  
▲김주현67  
▲김철수61  
▲김태승58  
▲김한도61  
▲김혜숙70  
▲남정이71  
▲문양수63  
▲문영순55  
▲박기성63  
▲박옥줄52  
▲박재우68  
▲백수웅69  
▲성기중64  
▲송용진72  
▲신행철61  
▲양정57  
▲양재섭71  
▲오근영65  
▲오수국74  
▲유병길72  
▲유재홍67  
▲이강조62  
▲이광렬75  
▲이국찬60  
▲이돈형63  
▲이석희48  
▲이순자61  
▲이원희69  
▲이종길64  
▲이종명73  
▲이종길67  
▲이해순66  
▲인치택60  
▲임채호64  
▲장문영65  
▲전도율59  
▲정무진66  
▲정일화65  
▲조상수71  
▲조원영64  
▲조진형64  
▲최광천74  
▲최인승63  
▲최태영75  
▲한영주72  
▲한영희75  
▲한철수64  
▲흥기화60  
▲홍순모56  
▲홍승재71  
▲황용수60

◇美術大學

▲강남미74  
▲김기미85  
▲김영태66  
▲김지열60  
▲부수언61  
▲신완식77  
▲유훈77

▲김년태69  
▲김동일62  
▲김명현65  
▲김문창65  
▲김석만57  
▲김세기70  
▲김영문69  
▲김영순75  
▲김용우65  
▲김원조51  
▲김의수68  
▲김종구70  
▲김지현54  
▲김충섭47  
▲김관급70  
▲김형기74  
▲나학진57  
▲노무용67  
▲문영모66  
▲민경천50  
▲박명기63  
▲박재권75  
▲박창중75  
▲백한균60  
▲손원경59  
▲송태훈64  
▲안재호61  
▲양영수72  
▲어한수59  
▲오병철65  
▲오준석52  
▲유시명72  
▲유정렬52  
▲이건무69  
▲이교선62  
▲이덕주71  
▲이병철62  
▲이성록75  
▲이우영57  
▲이정린48  
▲이종록47  
▲이준재64  
▲이충웅64  
▲이혜영57  
▲임흥72  
▲임형택66  
▲장인식65  
▲전홍석72  
▲정운택49  
▲조규향57  
▲조완규52  
▲조재두56  
▲채흥기75  
▲최봉석73  
▲최종무72  
▲최흥룡64  
▲한영환60  
▲한운사47  
▲허영옥63  
▲홍동식56  
▲홍승국48  
▲홍영남64  
▲황필호62

▲김금출55  
▲김영길77  
▲김종화62  
▲박미순72  
▲서경덕76  
▲심차순61  
▲유호종85

▲윤영출86  
▲이송희83  
▲이주을92  
▲이흥구90  
▲임정순76  
▲하수경74  
▲홍승숙71

◇法科大學

▲강대형72  
▲고홍달72  
▲구본성76  
▲권석진60  
▲길병위72  
▲김경만64  
▲김경한66  
▲김규립73  
▲김남홍62  
▲김만석64  
▲김세충76  
▲김용갑76  
▲김종구63  
▲김주옥57  
▲김중연57  
▲김진하62  
▲김형표60  
▲남기룡63  
▲류근석69  
▲민영문76  
▲박광배66  
▲박상열79  
▲박재원61  
▲박태영65  
▲박형일60  
▲배병우57  
▲변영훈61  
▲서종환67  
▲성시웅61  
▲손주찬62  
▲송철식73  
▲신동원57  
▲신종현74  
▲심명수63  
▲안창수57  
▲양인평64  
▲연기호55  
▲오석환55  
▲우종팔65  
▲유기준62  
▲윤경중61  
▲이준88  
▲이금철72  
▲이상민64  
▲이성준68  
▲이여성73  
▲이용권61  
▲이지희66  
▲이철신64  
▲이현영89  
▲임승균67  
▲임진섭88  
▲장순환44  
▲정갑주77  
▲정원삼66  
▲정진규71  
▲조규태63  
▲조인호81  
▲조종청66  
▲주광일65  
▲천대승56  
▲최낙규59  
▲최병룡60

▲이선원79  
▲이종수63  
▲이태영65  
▲이환범77  
▲조영철65  
▲한혜경79  
▲황민자67

▲강종원60  
▲곽현수76  
▲권경식52  
▲권연상63  
▲김건삼65  
▲김경원54  
▲김국진65  
▲김기엽41  
▲김대성85  
▲김상갑58  
▲김수목87  
▲김원주57  
▲김종환69  
▲김주인66  
▲김준호56  
▲김태구71  
▲김희관86  
▲도준환72  
▲문해성63  
▲박갑식88  
▲박기완57  
▲박승규58  
▲박종익68  
▲박형용74  
▲방극성78  
▲백운철69  
▲서덕모77  
▲선우영78  
▲손양근88  
▲송쌍중67  
▲신신59  
▲신용욱61  
▲신현무62  
▲심병택61  
▲안창식57  
▲엄진현55  
▲오석규62  
▲오지철73  
▲유봉수55  
▲윤종근89  
▲이규철89  
▲이상만63  
▲이상환82  
▲이수일70  
▲이영애71  
▲이인화58  
▲이직주43  
▲이하우62  
▲임성화66  
▲임정수77  
▲임철홍67  
▲전병연52  
▲정광진63  
▲정종현66  
▲조경래55  
▲조승현72  
▲조정규73  
▲조종한69  
▲진영채76  
▲최거훈80  
▲최민호82  
▲최선근57

▲최영진70  
▲하경철61  
▲하철용72  
▲한원도60  
▲허명72  
▲황규민83  
▲황봉환77  
▲황창연69  
▲황희철81

◇師範大學

▲강길선57  
▲강수길68  
▲강하구66  
▲구자현57  
▲김아52  
▲김경진78  
▲김동훈46  
▲김미자60  
▲김소영92  
▲김영자63  
▲김옥성43  
▲김월득34  
▲김진실43  
▲김항원72  
▲김황수43  
▲노명완73  
▲문상득53  
▲박재44  
▲박승철63  
▲박우선54  
▲박재희57  
▲박창만69  
▲방민준77  
▲복성규74  
▲서은경80  
▲서정숙57  
▲손상남59  
▲송용갑77  
▲신웅철71  
▲신태우62  
▲심낙기54  
▲안선강39  
▲안종혁81  
▲안창섭61  
▲양기석71  
▲연대성64  
▲오만원72  
▲오삼영60  
▲오인영55  
▲유근숙33  
▲유옥찬66  
▲유정규43  
▲유홍철65  
▲윤송자41  
▲이종69  
▲이계윤57  
▲이광희70  
▲이석병57  
▲이영빈68  
▲이은구62  
▲이재근43  
▲이중석63  
▲이진환58  
▲이태준53  
▲이현욱73  
▲임변장64  
▲임수오84  
▲임현소73  
▲장상철64  
▲장인선43  
▲전래수56

▲최우석63  
▲하영석82  
▲한동우59  
▲함승희74  
▲현복수68  
▲황도연66  
▲황재성69  
▲황철이65

▲강봉근74  
▲강인상70  
▲고재관73  
▲권오현75  
▲김경렬63  
▲김경희87  
▲김미선77  
▲김병욱73  
▲김신곤59  
▲김옥선37  
▲김옥희70  
▲김정길65  
▲김학로60  
▲김혜원59  
▲남호범69  
▲류은선92  
▲문정환59  
▲박노학64  
▲박영오70  
▲박인호57  
▲박종대56  
▲반진호80  
▲백성준82  
▲서영원64  
▲서정선64  
▲성하길40  
▲손흥빈56  
▲신영희74  
▲신행범78  
▲심상범64  
▲안선애45  
▲안종환59  
▲안채봉40  
▲양태정46  
▲오두범68  
▲오병승57  
▲오용근89  
▲유상일75  
▲유재만69  
▲유천근64  
▲윤덕성44  
▲윤익모66  
▲이경란38  
▲이계학62  
▲이배희55  
▲이승운77  
▲이유희68  
▲이인배45  
▲이주한57  
▲이진영55  
▲이찬호86  
▲이택준52  
▲이희원79  
▲임성근74  
▲임창순52  
▲임형진55  
▲장상호63  
▲장준호66  
▲전진하94

▲정규두38  
▲정영호56  
▲정의상60  
▲정일섭69  
▲조동석48  
▲조용선64  
▲조초희72  
▲최광일79  
▲최낙준66  
▲최명순58  
▲최병찬45  
▲최재근62  
▲하병권57  
▲허윤구47  
▲허현도56  
▲홍정희60

◇商科大學

▲강영71  
▲권영정78  
▲김도목65  
▲김보인56  
▲김영수56  
▲김옥윤54  
▲김은수55  
▲김정환65  
▲김종석63  
▲김준식70  
▲김진문64  
▲김진호51  
▲김창수70  
▲김현주63  
▲노준찬70  
▲민형동75  
▲박인석56  
▲박일책64  
▲배경한71  
▲서강무62  
▲서상록63  
▲서정호43  
▲소구영64  
▲신정용63  
▲엄수명67  
▲우의제67  
▲유봉단57  
▲윤호68  
▲윤명상71  
▲윤창희64  
▲이기인69  
▲이덕조57  
▲이병세48  
▲이영상55  
▲이윤달69  
▲이진무65  
▲인수환58  
▲장안섭60  
▲전병창68  
▲전영기69  
▲정두채53  
▲정용팔52  
▲조의상56  
▲지현균64  
▲최성기62  
▲최종찬72

◇獸醫科大學

▲고주영69  
▲김정만58  
▲김준삼59  
▲김창윤57  
▲박노국68  
▲백영준65

▲정상박58  
▲정은숙61  
▲정일동55  
▲정재현60  
▲조용란59  
▲조정제57  
▲주학선62  
▲최길순56  
▲최남신55  
▲최명진69  
▲최영락59  
▲추암석72  
▲함한숙44  
▲허현남69  
▲홍보업60  
▲황남룡39  
▲강좌희59  
▲김대중68  
▲김두하66  
▲김상희73  
▲김영수57  
▲김용일72  
▲김재진58  
▲김종남64  
▲김종학58  
▲김진규64  
▲김진의65  
▲김진환61  
▲김창호68  
▲김흥기69  
▲문수만64  
▲박동묘50  
▲박인태57  
▲박종달63  
▲변병주66  
▲서병환61  
▲서성석72  
▲석대경60  
▲손경수60  
▲안혜자57  
▲우영하58  
▲유만조61  
▲유인호45  
▲윤남렬68  
▲윤영원60  
▲이규찬59  
▲이기철61  
▲이병선57  
▲이승진67  
▲이영준75  
▲이재규70  
▲이태중55  
▲장시원74  
▲전국진70  
▲전수영64  
▲정기홍69  
▲정연필52  
▲조규용57  
▲주덕화49  
▲최덕근69  
▲최은호73  
▲최충호56  
▲김이섭59  
▲김주성58  
▲김진영64  
▲목선균73  
▲박인선81  
▲서승창58

▲석호봉<sup>67</sup>  
▲송문환<sup>75</sup>  
▲신문균<sup>60</sup>  
▲여현수<sup>58</sup>  
▲윤익현<sup>74</sup>  
▲이범선<sup>51</sup>  
▲이영득<sup>67</sup>  
▲이장현<sup>86</sup>  
▲이정학<sup>87</sup>  
▲조석봉<sup>61</sup>  
▲최상덕<sup>72</sup>  
▲허경행<sup>88</sup>

## ◇藥學大學

▲공영욱<sup>76</sup>  
▲김경숙<sup>59</sup>  
▲김상수<sup>70</sup>  
▲김의식<sup>56</sup>  
▲김종철<sup>53</sup>  
▲박경욱<sup>56</sup>  
▲박현배<sup>49</sup>  
▲손인자<sup>73</sup>  
▲엄문경<sup>89</sup>  
▲유재열<sup>57</sup>  
▲이갑열<sup>57</sup>  
▲이상모<sup>59</sup>  
▲이원상<sup>66</sup>  
▲이한배<sup>60</sup>  
▲정용호<sup>75</sup>  
▲정철영<sup>72</sup>  
▲진성근<sup>74</sup>  
▲최리나<sup>88</sup>  
▲한진호<sup>63</sup>

## ◇音樂大學

▲김광균<sup>83</sup>  
▲김정수<sup>65</sup>  
▲김철회<sup>77</sup>  
▲박지영<sup>88</sup>  
▲배일완<sup>71</sup>  
▲송복자<sup>88</sup>  
▲윤기숙<sup>86</sup>  
▲이동남<sup>70</sup>  
▲이숙미<sup>88</sup>  
▲이창희<sup>84</sup>  
▲조동제<sup>59</sup>  
▲조민정<sup>89</sup>  
▲표신미<sup>87</sup>  
▲홍명숙<sup>78</sup>

## ◇醫科大學

▲강길전<sup>67</sup>  
▲고재경<sup>60</sup>  
▲김범용<sup>53</sup>  
▲김재중<sup>83</sup>  
▲김철규<sup>64</sup>  
▲김치환<sup>79</sup>  
▲김학순<sup>80</sup>  
▲박영수<sup>65</sup>  
▲박인원<sup>83</sup>  
▲박종신<sup>89</sup>  
▲소순호<sup>84</sup>  
▲안기주<sup>63</sup>  
▲양원용<sup>75</sup>  
▲유재훈<sup>47</sup>  
▲윤경애<sup>85</sup>  
▲이국주<sup>35</sup>  
▲이동규<sup>83</sup>  
▲이종민<sup>89</sup>  
▲이중화<sup>61</sup>  
▲이창인<sup>78</sup>  
▲이흥균<sup>63</sup>

▲소경택<sup>65</sup>  
▲신광호<sup>71</sup>  
▲안영걸<sup>51</sup>  
▲원문상<sup>66</sup>  
▲윤희정<sup>83</sup>  
▲이양성<sup>62</sup>  
▲이장락<sup>49</sup>  
▲이재진<sup>64</sup>  
▲정영채<sup>60</sup>  
▲조형기<sup>58</sup>  
▲최영식<sup>65</sup>  
▲허정희<sup>66</sup>

▲공영주<sup>63</sup>  
▲김돈식<sup>66</sup>  
▲김옥선<sup>59</sup>  
▲김정수<sup>62</sup>  
▲김학균<sup>55</sup>  
▲박창서<sup>74</sup>  
▲손영섭<sup>77</sup>  
▲송인화<sup>57</sup>  
▲유도봉<sup>74</sup>  
▲윤영남<sup>52</sup>  
▲이보경<sup>60</sup>  
▲이연희<sup>61</sup>  
▲이종지<sup>67</sup>  
▲이훈파<sup>89</sup>  
▲정인조<sup>55</sup>  
▲조동희<sup>56</sup>  
▲차성애<sup>58</sup>  
▲최종순<sup>55</sup>

▲김상숙<sup>89</sup>  
▲김진선<sup>88</sup>  
▲김현숙<sup>78</sup>  
▲박현숙<sup>76</sup>  
▲서인선<sup>59</sup>  
▲육영희<sup>68</sup>  
▲이경희<sup>80</sup>  
▲이문경<sup>74</sup>  
▲이정순<sup>58</sup>  
▲임현정<sup>76</sup>  
▲조명희<sup>69</sup>  
▲최소희<sup>60</sup>  
▲한형실<sup>81</sup>

▲임홍철<sup>75</sup>  
▲전병훈<sup>52</sup>  
▲전영훈<sup>82</sup>  
▲정제일<sup>59</sup>  
▲정태산<sup>59</sup>  
▲조성근<sup>53</sup>  
▲최덕주<sup>64</sup>  
▲최승현<sup>77</sup>  
▲홍순관<sup>64</sup>

## ◇齒科大學

▲강대준<sup>72</sup>  
▲김기석<sup>78</sup>  
▲김상철<sup>83</sup>  
▲김영환<sup>72</sup>  
▲김유진<sup>83</sup>  
▲김정우<sup>67</sup>  
▲김현덕<sup>82</sup>  
▲문일환<sup>71</sup>  
▲박옥련<sup>57</sup>  
▲박주태<sup>76</sup>  
▲선우양국<sup>47</sup>  
▲안성훈<sup>61</sup>  
▲양홍서<sup>61</sup>  
▲오성근<sup>55</sup>  
▲용호택<sup>73</sup>  
▲원문청<sup>77</sup>  
▲윤대영<sup>51</sup>  
▲이명제<sup>61</sup>  
▲이선재<sup>59</sup>  
▲이재용<sup>80</sup>  
▲이정식<sup>55</sup>  
▲이종재<sup>88</sup>  
▲이철민<sup>65</sup>  
▲임형순<sup>70</sup>  
▲장문성<sup>89</sup>  
▲정낙현<sup>50</sup>  
▲정성택<sup>75</sup>  
▲정용식<sup>70</sup>  
▲정희태<sup>84</sup>  
▲조근태<sup>61</sup>  
▲천옥경<sup>81</sup>  
▲한광수<sup>69</sup>  
▲한중석<sup>83</sup>  
▲홍금표<sup>68</sup>

## ◇大學院

▲김석호<sup>88</sup>  
▲노영성<sup>82</sup>  
▲박복만<sup>71</sup>  
▲박종렬<sup>71</sup>  
▲안상형<sup>78</sup>  
▲유봉노<sup>53</sup>  
▲이남기<sup>76</sup>  
▲임경순<sup>61</sup>

## ◇經營大學院

▲김홍구<sup>70</sup>  
▲윤동식<sup>69</sup>  
▲이승주<sup>95</sup>  
▲이혁준<sup>96</sup>  
▲차윤석<sup>96</sup>

## ◇保健大學院

▲김남권<sup>87</sup>  
▲김영웅<sup>77</sup>  
▲이경연<sup>73</sup>

## ◇新聞大學院

▲노재성<sup>73</sup>  
▲임희동<sup>74</sup>

▲전경호<sup>59</sup>  
▲전성호<sup>84</sup>  
▲정동진<sup>76</sup>  
▲정진수<sup>89</sup>  
▲조병주<sup>52</sup>  
▲차철환<sup>53</sup>  
▲최봉호<sup>67</sup>  
▲한천석<sup>41</sup>

▲김갑주<sup>70</sup>  
▲김상철<sup>79</sup>  
▲김영호<sup>62</sup>  
▲김원표<sup>74</sup>  
▲김익현<sup>85</sup>  
▲김학성<sup>49</sup>  
▲남태우<sup>84</sup>  
▲박동관<sup>84</sup>  
▲박종만<sup>75</sup>  
▲서운석<sup>78</sup>  
▲신철수<sup>77</sup>  
▲양재영<sup>76</sup>  
▲엄인용<sup>88</sup>  
▲오태식<sup>50</sup>  
▲우재은<sup>59</sup>  
▲윤경수<sup>78</sup>  
▲이기승<sup>60</sup>  
▲이상필<sup>76</sup>  
▲이성호<sup>77</sup>  
▲이정섭<sup>85</sup>  
▲이정호<sup>84</sup>  
▲이준기<sup>50</sup>  
▲이현석<sup>88</sup>  
▲장광훈<sup>76</sup>  
▲정낙연<sup>47</sup>  
▲정대현<sup>76</sup>  
▲정영완<sup>57</sup>  
▲정호선<sup>86</sup>  
▲조광현<sup>74</sup>  
▲주미희<sup>89</sup>  
▲최기진<sup>47</sup>  
▲한광희<sup>72</sup>  
▲한태원<sup>76</sup>

▲김선동<sup>88</sup>  
▲박남규<sup>83</sup>  
▲박영순<sup>67</sup>  
▲성기욱<sup>80</sup>  
▲유방현<sup>89</sup>  
▲유연철<sup>81</sup>  
▲이용욱<sup>78</sup>  
▲전정순<sup>87</sup>

▲박부원<sup>70</sup>  
▲이병재<sup>69</sup>  
▲이운재<sup>72</sup>  
▲정일채<sup>69</sup>

▲김민영<sup>74</sup>  
▲김종만<sup>64</sup>  
▲황석천<sup>82</sup>

▲유일연<sup>75</sup>  
▲하정조<sup>75</sup>

## ◇行政大學院

▲김경엽<sup>65</sup>  
▲김두성<sup>82</sup>  
▲김상돈<sup>85</sup>  
▲노화준<sup>69</sup>  
▲손종호<sup>67</sup>  
▲유동재<sup>89</sup>  
▲이정호<sup>63</sup>  
▲이지철<sup>73</sup>  
▲조병환<sup>79</sup>

▲김공환<sup>68</sup>  
▲김명진<sup>69</sup>  
▲김종면<sup>68</sup>  
▲박영일<sup>65</sup>  
▲심현창<sup>90</sup>  
▲이정식<sup>72</sup>  
▲이준영<sup>70</sup>  
▲장만철<sup>88</sup>  
▲최재열<sup>80</sup>

## ◇環境大學院

▲김현석<sup>93</sup>  
▲이만형<sup>83</sup>  
▲정경상<sup>78</sup>

▲안영식<sup>84</sup>  
▲이창우<sup>85</sup>  
▲황보영춘<sup>86</sup>

## ◇최고경영자과정

▲강자화<sup>32</sup>  
▲고희선<sup>41</sup>  
▲권병식<sup>28</sup>  
▲김광석<sup>37</sup>  
▲김병실<sup>2</sup>  
▲김성규<sup>5</sup>  
▲김영균<sup>12</sup>  
▲김영조<sup>25</sup>  
▲김영천<sup>30</sup>  
▲김철한<sup>3</sup>  
▲남대현<sup>30</sup>  
▲문재곤<sup>4</sup>  
▲박병익<sup>20</sup>  
▲박세환<sup>39</sup>  
▲박영근<sup>17</sup>  
▲박인중<sup>25</sup>

▲고진석<sup>30</sup>  
▲구자정<sup>23</sup>  
▲권용진<sup>36</sup>  
▲김동엽<sup>6</sup>  
▲김상호<sup>39</sup>  
▲김승안<sup>33</sup>  
▲김영웅<sup>28</sup>  
▲김영준<sup>40</sup>  
▲김종찬<sup>5</sup>  
▲김현수<sup>24</sup>  
▲남현일<sup>32</sup>  
▲박 석<sup>25</sup>  
▲박성학<sup>30</sup>  
▲박승서<sup>5</sup>  
▲박영숙<sup>31</sup>  
▲박철일<sup>39</sup>

▲박현규<sup>10</sup>  
▲방상우<sup>31</sup>  
▲백규현<sup>25</sup>  
▲송기원<sup>28</sup>  
▲안갑원<sup>34</sup>  
▲안길용<sup>39</sup>  
▲어준선<sup>14</sup>  
▲유진석<sup>92</sup>  
▲이방수<sup>37</sup>  
▲이병문<sup>35</sup>  
▲이병하<sup>20</sup>  
▲이삼열<sup>3</sup>  
▲이시원<sup>41</sup>  
▲이영주<sup>5</sup>  
▲이용근<sup>38</sup>  
▲이인영<sup>22</sup>  
▲이중근<sup>5</sup>  
▲이증삼<sup>40</sup>  
▲이태호<sup>20</sup>  
▲이회립<sup>6</sup>  
▲임태수<sup>28</sup>  
▲장복진<sup>21</sup>  
▲전유승<sup>39</sup>  
▲조방래<sup>40</sup>  
▲주영복<sup>14</sup>  
▲최병면<sup>41</sup>  
▲최세창<sup>7</sup>  
▲최우열<sup>25</sup>  
▲홍명재<sup>40</sup>

## ◇최고산업전략과정

▲김성길<sup>7</sup>  
▲김춘진<sup>14</sup>  
▲류시영<sup>2</sup>

▲박형주<sup>11</sup>  
▲배석두<sup>36</sup>  
▲손정수<sup>6</sup>  
▲신동오<sup>28</sup>  
▲안경선<sup>41</sup>  
▲안부치<sup>37</sup>  
▲육기진<sup>21</sup>  
▲이근재<sup>17</sup>  
▲이병구<sup>16</sup>  
▲이병정<sup>8</sup>  
▲이봉훈<sup>40</sup>  
▲이상복<sup>41</sup>  
▲이신형<sup>25</sup>  
▲이완근<sup>27</sup>  
▲이윤근<sup>2</sup>  
▲이정훈<sup>38</sup>  
▲이중철<sup>35</sup>  
▲이태교<sup>4</sup>  
▲이현도<sup>26</sup>  
▲임도수<sup>20</sup>  
▲장명웅<sup>40</sup>  
▲장태완<sup>6</sup>  
▲정춘근<sup>3</sup>  
▲조창구<sup>7</sup>  
▲차두홍<sup>3</sup>  
▲최병택<sup>6</sup>  
▲최영주<sup>37</sup>  
▲한경남<sup>12</sup>

## ◇최고산업전략과정

▲김수기<sup>14</sup>  
▲김현우<sup>9</sup>  
▲박윤소<sup>2</sup>

▲박인호<sup>12</sup>  
▲오 현<sup>5</sup>  
▲이강덕<sup>17</sup>  
▲이충언<sup>14</sup>  
▲조원호<sup>14</sup>

## ◇국가정책과정

▲김 집<sup>18</sup>  
▲김성은<sup>30</sup>  
▲김우연<sup>14</sup>  
▲김충현<sup>18</sup>  
▲김호연<sup>11</sup>  
▲나재암<sup>16</sup>  
▲노정기<sup>36</sup>  
▲박제혁<sup>26</sup>  
▲백석현<sup>20</sup>  
▲손일권<sup>26</sup>  
▲신주현<sup>15</sup>  
▲안영기<sup>30</sup>  
▲오휘영<sup>8</sup>  
▲윤정식<sup>41</sup>  
▲이규정<sup>13</sup>  
▲이상영<sup>40</sup>  
▲이종보<sup>41</sup>  
▲정철수<sup>11</sup>  
▲조영래<sup>34</sup>  
▲허위구<sup>38</sup>

## ◇고급금융과정

▲김광진<sup>1</sup>  
▲손주철<sup>1</sup>  
▲장재규<sup>5</sup>  
▲조만식<sup>3</sup>  
▲최경식<sup>2</sup>

▲손은택<sup>3</sup>  
▲육남선<sup>6</sup>  
▲이영삼<sup>5</sup>  
▲정병욱<sup>12</sup>  
▲최창호<sup>7</sup>

▲김남경<sup>41</sup>  
▲김영준<sup>31</sup>  
▲김종태<sup>38</sup>  
▲김한주<sup>4</sup>  
▲김황봉<sup>4</sup>  
▲남기춘<sup>39</sup>  
▲박기철<sup>39</sup>  
▲박준창<sup>19</sup>  
▲변지섭<sup>28</sup>  
▲송대성<sup>38</sup>  
▲안성혁<sup>39</sup>  
▲오광협<sup>37</sup>  
▲유병봉<sup>1</sup>  
▲이관표<sup>12</sup>  
▲이민복<sup>33</sup>  
▲이상철<sup>33</sup>  
▲임춘원<sup>20</sup>  
▲조성두<sup>40</sup>  
▲조영철<sup>24</sup>

▲김정갑<sup>5</sup>  
▲위문환<sup>6</sup>  
▲정원봉<sup>4</sup>  
▲조용주<sup>5</sup>  
▲황선권<sup>4</sup>

##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6월 1일 ~ 6월 30일〉

### 법 인

◇서울방송(주) 尹世榮(61년  
法大卒)=1좌

### 개 인

## ◇人文大學

▲김석규<sup>95</sup> ▲배재범<sup>96</sup>  
▲이수형<sup>85</sup>

## ◇社會科學大學

▲김동식<sup>92</sup>

## ◇自然科學大學

▲김영욱<sup>83</sup> ▲최익규<sup>94</sup>

## ◇經營大學

▲최주니<sup>94</sup> ▲홍강식<sup>97</sup>

## ◇工科大學

▲김상길<sup>88</sup> ▲김재필<sup>84</sup>

▲박홍철<sup>95</sup>  
▲한수은<sup>59</sup>

## ◇農科大學

▲권오진<sup>66</sup>  
▲송주백<sup>97</sup>  
▲안정환<sup>86</sup>

## ◇文理科學大學

▲김영식<sup>88</sup>

## ◇法科大學

▲고학봉<sup>64</sup>  
▲김춘기<sup>94</sup>  
▲지원훈<sup>65</sup>

## ◇師範大學

▲장수정<sup>95</sup>

## ◇商科大學

▲박근준<sup>65</sup>

▲이창식<sup>72</sup>

## ◇藥學大學

▲고원규<sup>90</sup>

## ◇音樂大學

▲조동제<sup>59</sup>

## ◇醫科大學

▲김병천<sup>71</sup>

## ◇齒科大學

▲김주관<sup>72</sup>

## ◇大學院

▲최종수<sup>77</sup>

## ◇環境大學院

▲박종근<sup>94</sup>

## ◇최고산업전략과정

▲김두철<sup>12</sup>

## ◇藥學大學

▲유원근<sup>68</sup>

## ◇音樂大學

▲조 현<sup>67</sup>

## ◇醫科大學

▲김용훈<sup>79</sup>

## ◇齒科大學

▲서학원<sup>80</sup>

## ◇大學院

▲한승훈<sup>89</sup>

## ◇環境大學院

▲한승훈<sup>89</sup>

## ◇최고산업전략과정

▲한승훈<sup>89</sup>